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0호 【루계 제23162호】 주체99(2010)년 7월 29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웰남농민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웰남농민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웬 꾸옥 끄엉위원장이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사상의 위력으로 승리를 떨치는 조선

메히꼬단체 블레찐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신 15돐에 즈음하여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에서 블레찐 제59호를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주체사상탑사진을 싣고 《사상사업을 앞세워》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블레찐은 머리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

이것이 1995년 6월 19일 조선의 **김정일**령도자께서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의 골자라고 할수 있다.

로작에는 사회주의제도의 수립과 그 공고발전의 합법칙성,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이 밝혀져있다.

블레찐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오시는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독창적인 사상론을 제시하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철두철미 사상의 위력으로 수행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군대도 사상의 위력으로 강화하고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도 인민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이룩해나가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시였다.

오늘 조선의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불패의 보루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시종일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신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블레찐은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여》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이며 그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발동시킬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조를 지니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것을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내세우고 힘있게 이끄시였다.

조선에서는 령도자를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고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었으며 누구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블레찐은 《사상의 위력으로》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로작이 발표된 후 지난 15년간 조선이 걸어온 로정은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리론의 정당성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준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며 더우기 미국에 의하여 반세기이상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하고있는 조선이 지난 세기 말엽의 가장 엄혹한 정세와 시련속에서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은것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웠기때문이다.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최대로 폭발되면서 오늘 조선에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의 로작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당과 인민이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남녘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전승을 경축하는 성대한 평양시군중대회장에 높이 모시였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57년의 세월이 흘렀다.

뜻깊은 7.27전승절을 맞이할 때마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의 운명과 존엄, 미래를 지켜주고 빛내여주시는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김일성주석님은 미제를 타승하신 전설적영웅

퇴직교수 최문성은 제자들에게 《7월 27일은 우리의 가슴속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미제를 피수로 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신 전승의 날로, 근 200년의 침략전쟁사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몰랐다는 미제가 력사상 첫 참패를 당한 날로 새겨져있다.》고 말하였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리금혁로인은 《북이 미국을 후려갈기고 승리를 이룩한 7월을 맞고보니 민족적자부심이 더욱 넘쳐난다.》고 하면서 《백두산에서 축지법으로 일제의 100만대군을 쳐물리치신 **김일성**주석님께서 6.25전쟁때에도 령활한 전법으로 제노라 하던 미제침략군을 굴복시키고 항복서를 받아내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전쟁사》연구회의 한 회원은 《세계 그 어느 전쟁사에도 미국이 감행한 6.25전쟁처럼 그렇게 다국적무력이 동원된 례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의 면전에서 패전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였고 결국은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현대명인사 연구가 전영진은 자기의 글에서 《**김일성**대장군께서 다국적군을 추풍락엽으로 만드신 7.27전승은 인류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한 신화적쾌승이였고 전설적무공이였다.》고 썼다.

부산의 한 주민은 《6.25전쟁에서의 승리는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이북군대와 민중의 무비의 영웅성의 승리이다. 정녕 그분은 가장 출중한 군사의 영재, 불세출의 영웅이시다.》고 격찬하였다.

대전의 한 재야인사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미제를 타승하신 전설적영웅이시다.

인류사는 전장에서 공적을 쌓은 장군들을 수많이 기록하고있지만 주석님처럼 세계《최강》이라고 으시대던 미국과 맞서 희세의 전승을 기록한 군사의 대가를 알지 못한다.

무적의 총대로 침략자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박아넣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주신 주석님은 진정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한 퇴역장성은 《북이 거둔 위대한 승리는 천출명장을 모신 군민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있으며 그 어떤 대적의 침략도 쳐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6.25의 비극을 7.27전승이라는 쾌거로 바꾸어놓으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공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승을 선군정치로 빛내여가시는 김정일장군님

미제를 쳐부신 승리의 력사를 백두산선군총대로 빛내여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다함없는 흠모의 목소리가 7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치고있다.

한 력사학교수는 제자들에게 《7월의 대승을 안아오신 **김일성**주석의 출중한 지략과 업적은 오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장군께서는 7.27전승을 위대한 선군정치로 찬연히 빛내여나가신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부산의 한 재야인사는 오만무례한 침략책동에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하는 공화국의 기질과 배짱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이어 오늘도 계속 발휘되고있는것은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선군령도의 결과라고 하면서 《오늘 동서방의 어느 대소국가를 막론하고 미국과의 정면대결에서 승산을 본 나라, 미국으로 하여금 어쩌지 못하고 굽어들게 하는 나라는 오직 이북뿐이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서울 룡산구의 한 주민은 《오늘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고 평화가 고수되고있는것은 **김정일**령도자님께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계시기때문이다.》고 하였으며 재야인사 한성호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미국이 무적필승의 이북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항복서를 바칠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한총련》은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세기의 명장 **김일성**주석님의 출중한 지략과 품격은 오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지금도 장군님께서는 미국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협공으로부터 민족의 존엄을 철옹성같이 지켜가고계신다.

이제 어떤 침략세력이든 제2의 6.25를 도발한다면 그뒤에는 반드시 제2의 7.27이 따르게 될것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우리 겨레는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세계정치사에서 처음보는 특유의 선군정치로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시고 민족의 운명과 자주권, 주체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계신다.

미국이 만약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고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천하무적의 강군, 강민을 가진 이북의 무자비한 타격과 이남민중의 거세찬 반미항전앞에 자기의 존재마저 끝마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성과로 뜻깊게 맞이하자

날바다를 밀어내며 조국의 대지 넓혀간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에 진입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이 대계도간석지를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에 일제히 진입하였다.

서해의 여러개 섬을 련결해야 하는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는 수천m의 구간에 방조제를 쌓아 두개 농장의 면적과 맞먹는 드넓은 간석지를 얻어내고 옥토로 만드는 보람찬 애국사업이다.

간석지건설자들은 100여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십만㎡의 돌입히기를 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낄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달라붙어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첫시작부터 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경지면적을 늘일수 있는 예비가 적지 않습니다. 빈땅도 더 찾아내고 간석지도 개간하면 경지면적을 얼마든지 늘일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간석지건설의 나날에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를 빠른 기간내에 끝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사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공사가 분산되여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통일적인 지휘밑에 공사를 추진하게 하면서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집중시키고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도록 함으로써 첫시작부터 공사속도를 높이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내려가 로동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사에 달라붙은 건설자들은 행복한 래일을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에 참가하였다는 자각을 안고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들의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와도1호방조제공사를 맡은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와 온돌포10호방조제공사를 맡은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안고 전투장마다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맡은 공사과제를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100여m의 제방을 쌓는 혁신을 일으켰다.

날바다에 제방을 쌓아 새땅을 얻어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은 다른 간석지건설사업소들과 기계화사업소들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장송, 석화, 로하,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들에서는 달양도, 외장도, 내장도를 비롯한 섬들을 타고앉아 도로들을 건설하고 발파를 위한 굴진작업을 힘있게 내밀고있으며 해상굴착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전개하면서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고있다. 다사기계화사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들에서는 부속품생산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대형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에 대한 수리정비작업을 실속있게 하여 만가동을 보장하게 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계도간석지건설의 나날에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맡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사실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김기두

김철소식

21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도입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당대표자회를 혁명적대고조의 빛나는 승리로 맞이하기 위해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면서 철강재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210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철강재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자력갱생의 정신을 지니고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새 기술의 개척자, 전초병이 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중요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전망성있게 밀고나가면서 현행생산공정들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련합기업소에서는 4.15기술혁신돌격대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핵심으로 하여 직장, 단위들에서 실정에 맞는 기술혁신안들을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용광로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생산정상화의 예비가 기술혁신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2호용광로의 열균형을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할수 있는 최량화된 원료, 연료장입비률을 확정함으로써 부단히 변화되는 원료, 연료조건에서도 쇠물생산을 성과적으로 내밀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용광로바닥온도측정을 위한 장치를 도입하여 로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고 그 수명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강철2직장에서 전로와 조피공정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였다. 이곳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지혜를 합쳐 정련공정을 새롭게 확립함으로써 강재의 질을 한계단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직장에서는 전로에 장입하는 합금철을 미리 가열하는 장치를 받아들여 운영시 산소취입시간을 줄이였으며 대남비보호를 위한 기술혁신안도 도입하여 그 수명을 훨씬 늘이였다.

강피관리직장에서는 기본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담보하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였으며 산소직장에서는 압축기의 진동을 줄이고 산소의 순도를 높일수 있는 창의고안을 실현하여 철강재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공무, 내화물부문의 여러 직장들에서도 기술혁신의 불길높이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기수리2직장의 기능공들은 각종 유색금속주조형타들을 새롭게 제작하여 전동기수리의 질을 한계단 높이였다. 가공3직장의 로동자들도 기술자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 압연롤가공선반을 완비하기 위한 사업과 종전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 내화물부문의 직장들에서는 내화벽돌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개조안을 실현하였다.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결의드높이 대고조진군을 다그치고있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열흘동안에 백수십만t의 풀을

각지 농촌들에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풀베기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2일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한 서흥군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소식에 접하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최근 열흘동안에 백수십만t의 풀을 베여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풀베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에서는 당면한 풀베기전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알곡증수의 커다란 예비의 하나가 풀거름을 많이 생산하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떨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풀베기전투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밑에 첫시작을 잘 뗀 기세로 련일 풀베기실적을 올리고있다.

만경대구역, 형제산구역, 력포구역을 비롯하여 평양시 주변농촌들에서는 그날 계획한 풀베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계획의 많은 몫을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황해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풀을 베여들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서흥군과 황주군, 중화군의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에게 풀베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질좋은 풀거름을 생산할수 있게 대책을 바로세워주고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풀판을 제때에 확보하고 작업반, 분조별로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풀베기실적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은파군과 연탄군의 협동농장들에서도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매일 많은 풀을 베여들이고있다. 그리하여 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수십만t의 풀을 베여들이였다.

자강도안의 농촌들에서도 풀베기전투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화평군, 위원군, 장강군들에서는 일군들이 산판을 밟으며 좋은 풀판을 찾아낸데 기초하여 거기에 로력과 운반수단들을 집중시키고있다. 그리고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농업근로자들이 서로 승벽내기로 풀을 베여들이게 하고있다.

만단의 준비밑에 풀베기를 시작한 덕성군, 고원군을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농촌들에서는 매일 계획보다 많은 풀을 베여들이는족족 작업반, 분조, 세대별로 만들어놓은 퇴적장마다에 쌓고있다.

황해남도를 비롯한 다른 도안의 농촌들에서도 집짐승우리주변과 산기슭, 포전가까이에 각이한 규격의 퇴적장을 만들어놓고 풀을 베여들이는족족 진거름과 섞거나 집짐승우리들에서 밟혀내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금야고려약공장에서

고려약의 질을 높여

금야고려약공장에서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고려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해마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해온 공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와 새로운 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질좋은 미나리교갑약을 만들어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금야군에서 잘 자라는 미나리로 간염예방에 효능이 높은 고려약을 많이 생산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리혜옥, 변원진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지칠줄 모르는 탐구의 낮과 밤을 보냈다.

그들은 약학연구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교갑을 만들어내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진행하였다.

해당한 원료로부터 젤라틴을 얻어내고 일정한 색소를 가진 완성된 교갑으로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온 나라의 어디서나 일어나는 대경사의 소식들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으며 부족되는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갔다. 하여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와 기술에 의거한 교갑을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공장에서는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교갑의 기본원료로 되는 젤라틴을 계절에 관계없이 리용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방도도 찾아내였다.

이들이 이룩한 성과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대중약품, 필수약품들을 교갑약으로 만들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미나리교갑약을 더 현대적으로 만들면서도 공장의 다른 모든 약들도 교갑약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천리마동상에 조선녀성이 있다

우리 조선녀성들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법령을 받아안고 남성들과 어깨나란히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온 긍지높은 녀성들이다.

지금으로부터 64년전 사람을 낳아키우고 대지를 가꾸면서도 사람값에 들지 못하였던 녀성들이 자기들을 존엄높은 인간으로 높이 받들어주시는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감격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조선녀성의 권리와 힘의 송가인 《녀성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조국과 민족앞에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린 우리 녀성들의 영웅적모습이 조국의 푸른 창공에 웅장하게 솟아오른 천리마동상에 새겨져있다.

영원히 날개를 접지 않을 천리마를 타고 하늘높이 날아올라 세월을 주름잡는 두 사람의 기수, 조선인민을 대표하는 그들중의 한사람이 녀성이다.

천리마는 영웅을 기수로 맞이했을 때에만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적의 준마이다. 지구우에는 전장을 누비는 군마에 무사를 태운 동상은 많지만 한 말음에 천리를 달리는 전설적인 천리마에 녀성을 태운 동상은 없다. 자기를 낳아키운 위대한 조국의 하늘에 자기의 모습을 영원불멸할 영웅의 모습으로 아로새기는 영광을 조선녀성들이 처음으로 지니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녀성해방투쟁사속에서 지옥의 나락으로부터 인간세상으로, 인간세상에서 하늘로 날아오른 조선녀성들의 기적적인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시대,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절정을 엮고있다.

날에날마다 눈부신 빛을 뿌리는 조선녀성의 위대한 모습과 더불어 선군조선의 천리마는 더욱 큰 비약의 나래를 펼칠것이다.

1

녀성문제는 나라와 민족, 인류의 운명과 전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회정치적문제이다.

녀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으며 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은 나라와 민족, 인류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녀성들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버림받을 때 나라와 민족은 자기 힘의 절반을 잃게 되며 녀성들이 암흑속에 묻혀 병들때 나라와 민족전체가 병들게 된다. 녀성이 없는 세계가 있을수 없듯이 녀성의 역할을 떠난 사회발전이란 생각할수 없다.

녀성들은 인류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남성들과 함께 자기 조국과 민족의 력사를 창조하였다. 흥망성쇠가 뒤바뀌는 나날 녀성들은 변함없이 남성들과 운명을 같이하였다. 하지만 그 수고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녀성간에는 넘을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있었다.

력사적으로 녀성은 울밖에서는 토지소유자나 공장주의 노예였고 울안에서는 가정의 하녀였다. 녀성들의 처지는 그들이 살고있는 나라의 경제력과 문화발전수준과는 관계없이 본질상 똑같았다. 발전된 나라에서 살든 뒤떨어진 나라에서 살든 그가 녀성이라면 다같이 사회의 종이였으며 헐값의 로동력이였다. 바로 그녀종을 키우는 정신적터전이 남존녀비였다.

남자들이 녀자들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지배계급들의 리해관계로 하여 수천년세월 절대적인것으로 굳어졌다. 착취계급의 국가들은 녀성들을 무지몽매속에 묻어두고 노예로 키우는것을 엄격히 정책화하였으며 모든 권력구조들은 남성우위관점에 기초하여 세워졌다. 녀성은 착취와 략탈의 무진장한 원천으로, 인류력사보존의 수단으로 존재하였다. 녀성들은 모든 권리를 잃었기에 인류의 문명에 발을 맞출수 없었고 자기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느끼지 못했다. 인류력사는 장구한 세월 남성주도의 력사로 흘러왔다.

그러나 녀성들의 세계 역시 착취와 억압, 천대와 멸시, 차별과 무권리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영원한 순종의 세계가 아니였다. 일찌기 18세기와 19세기를 거쳐 20세기 초엽에 녀성해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세계를 뒤흔들어놓았을 때 인류는 비로소 녀성들에게도 목숨까지 바쳐 성취해야 할 귀중한 소망이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녀성들도 인간이였다. 인간으로 태여날 권리와 인간으로 살 권리를 가진 인간이였다. 인류력사를 이어야 할 의무를 지녔기에 녀성으로 태여난것은 영광이였지 죄가 아니였다. 녀성들을 사회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한 항거의 결과로 교육권과 취업권 등 녀성문제전반에서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녀성해방운동은 인간생활전체를 남녀공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공정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지 못했다.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수천년세월을 다해 전세계적범위에서 어길수 없는 륜리도덕으로 세습화되고 제도화되여온 반인류적인 녀성관을 타파하는것이야말로 력사의 기적이였으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녀성문제는 영원히 해결할수 없는것이였다. 바로 이 기적을 이룩하신분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의 갈피갈피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의 손길이 닿아있으며 우리 녀성들에 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과 하늘같은 은덕이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남성들과 함께 녀성들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인간으로 높이 받들어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혁명의 동력으로 규정하실 때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룩할 그 거대한 주체속에 녀성들을 당당히 포함시키시였다. 조선혁명은 항일대전을 선포하던 첫 시각에 벌써 《유격대행진곡》과 《녀성해방가》를 함께 불러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하는 자주적인 녀성들이 태여났음을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반석어머님의 뜨거운 사랑과 축복속에서,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는 헌신속에서 녀성이 얼마나 위대하며 녀성이 얼마나 큰일을 할수 있는가를 온몸으로 느끼며 성장하시였다. 강반석녀사는 자신의 한생을 바쳐 조선녀성의 불멸의 귀감을 이룩하신 혁명의 어머니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어머님의 모습에서 조선녀성의 모습을 보시였고 시련을 헤치는 투쟁속에서 이 세상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조선녀성들임을 확신하시였다. 끝없이 간고한 고역과 불행의 력사를 이어나가는 녀성들의 모습에서 끊길줄 모르는 억센 힘과 미구에 도달하게 될 녀성들의 영웅적모습을 발견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인류사적 공적이 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조선혁명은 그 첫걸음부터 녀성해방위업을 력사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인류녀성운동의 진로를 개척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준엄한 항일대전의 나날에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는 녀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주인으로 받들리울 인민대중의 국가를 건설하실 확고한 의지가 어려있다. 조선녀성들의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남녀평등권법령은 우리 국가가 태여나기 훨씬 이전에 마련되고 해방후 인민정권의 탄생과 함께 발포된 인류력사상의 첫 녀성해방법령이였다.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우리 녀성들은 남자들과 함께 토지를 분여받고 공장과 일터의 주인이 되던 나날에 수천년간의 불평등과 무권리에서 해방되는 큰걸음을 내짚었으며 우리 혁명이 걸음걸음 전진할 때마다 녀성들의 생활과 처지에서도 뚜렷한 전환이 이룩되였다.

20세기의 진두에 서시여 인류가 걸을 정의의 길을 열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귀중한 시간들이 녀성들에게 제일 많이 바쳐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당창건위업을 실현하신 다음 처음으로 진행하신 사업이 다름아닌 민주녀성동맹결성이였다. 새 조국건설로 낮에 밤을 이으시며 사업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집무실 흑판에는 해방전 녀성로동자들의 처지를 각이한 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기록되여있었다. 나라에 태여나는 첫 녀성잡지제호를 몸소 《**조선녀성**》이라고 달아주시고 친히 축사까지 써주시며 연필을 쥔 녀성의 손을 뜨겁게 감싸쥐시고 한자한자 글을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스승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녀성들을 사회와 가정의 속박에서 해방하는데서 근본문제는 사회제도문제이며 정치문제이다. 낡고 뒤떨어진 사상과 도덕이 지배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제도화되여있는 사회에서 녀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완전한 환상이며 녀성들에 대한 기만이다. 설사 특정한 녀성들이 국가의 수뇌직까지 차지하고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녀성들의 자유와 권리의 상징으로는 될수 없으며 그 정치가 녀성들의 리익을 대표하는것도 아니다. 미국의 《자유의 녀신상》밑에 녀성들의 지옥이 있다고 하는것은 우연한 말이 아니다. 착취제도가 존재하는 한 어느 개별적인 정치활동가나 몇몇 자선집단의 선행으로써는 해결할수 없는것이 녀성문제이며 여기에 녀성문제가 오늘까지 세계적인 난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땅우에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녀성존중의 위대한 정치를 펼치신것은 녀성들을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남녀불평등을 근원적으로,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신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이 세상에는 우리 당과 같이 력사적인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해방하기 위한 문제를 혁명의 전략적과업으로 제기하고 시종일관 줄기차게 밀고나간 례가 없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이전 서부도이췰란드의 녀류작가는 녀성들에게 탁아소 하나 무상으로 제공할수 없는 사회가 과연 풍요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세계가 문명의 첨단을 달린다고 하는 오늘의 21세기에도 이 문제는 의연히 제기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고가 텅 비였던 해방직후의 그 어려운 나날에 벌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1,000여명능력의 주탁아소가 일떠섰으며 일찍부터 어린이들을 국가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이 응당하고 례사로운 일로 되였다. 녀성들을 위한 웅대한 과업들을 제시하고 그 어느 과업보다 더 빨리, 더 완벽하게 수행해온 나날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는 거창한 혁명이 일어나고 평양산원과 같은 훌륭한 의료봉사기지들이 도처에 일떠섰다.

지구우의 수십억녀성들중에서 제일 비참한 처지에 있던 조선녀성들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고 녀성의 존엄과 행복을 노래하게 된 영광스러운 력사속에는 우리 녀성들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우리 녀성들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 조국통일문건에 서명하실 때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심장속에 반세기가 넘도록 남편들과 헤여져산 녀성들의 그 아픔, 그 상처가 저리도록 파고들었음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녀성들에게 바쳐진 한생이였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대로 녀성해방의 위대한 력사였다.

어버이수령님은 인류녀성운동사가 맞이한 첫 수령, 첫 어버이이시였다. 그이의 간고하고 영광스러운 력사속에서 우리 녀성들의 자유와 해방의 새 세계, 광명의 세계가 동트고 오늘로 이어졌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을 때 우리 녀성들이 제일 몸부림치며 울고 또 울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념원하신 우리 녀성들의 세기적인 숙원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력사적인 과제를 선군시대의 성스러운 과업중의 하나로 높이 내세우시였다.

일찌기 어린시절에 백두산녀장군이신 어머님의 군마를 타시고 녀성대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성전의 진군길을 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성들의 거대한 정신력과 뛰여난 능력을 항일대전의 결사전속에서 직접 보시면서 성장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와 자연과 자기자신을 개조할 우리 녀성들의 무궁한 능력을 확신하시고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 녀성들의 자리를 넓고 높게 마련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인재, 녀성일군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중시되고있으며 녀성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다같이 국가가 설정한 규정에 따라 최우선적인 혜택과 대우를 받는다. 녀성중시의 최전성기를 펼친 우리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간부대렬이 부단히 늘어나고있다. 우리 녀성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시작된 어린시절로부터 대학과 조국보위초소, 공장과 농장벌에서 처녀시절을 마치고 어머니가 되여 일생을 마칠 때까지 자기가 남자들의 뒤선에 서있다는감을 조금도 느껴보지 못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서는 조국과 민족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마련하시여 조선녀성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려는 열화같은 사랑이 시시각각 뜨겁게 불타오르고있다.

강성대국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숙원속에는 녀성들의 소원이 가장 크게, 가장 깊이 어려있다. 우리 녀성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장엄한 불길속에서 자기들의 숙망이 이루어지고있음을 날마다, 시간마다 절감하고있다. 어제는 현대적인 기초식품공장, 가금목장, 화장품공장들이 줄지어 일떠서고 오늘은 최상급의 식료품가공기지, 백화점, 살림집들이 우리 녀성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거창한 력사가 녀성들을 위한 진지들을 하나하나 점령해나가고있다. 녀성들의 시름이 완전히 가셔질 때 당과 인민의 시름이 덜리고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린다는 조국건설의 시, 녀성들에 대한 사랑의 시가 이 땅에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이름난 정치가들을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녀성들을 위한 일에 나라의 모든 힘을 동원하는 방대한 작전으로부터 녀성들의 음식문화, 가정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심을 돌려준 위대한 령도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다. 녀성들에게 무관심한 현상을 목석과 같은 인간의 행위로 분노하시며 녀성들이 해놓은 자그마한 일도 위훈으로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은 우리 녀성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보호자, 친어버이의 모습으로 깊이 새겨져있다.

우리 혁명의 첫 기슭에서 반일부녀회가 태여나던 날 그 자리에 참가한 녀인들가운데는 이름을 가지지 못한 녀인들이 절대다수였다. 녀성으로 태여난 죄아닌 《죄》로 그렇게 사회와 가정에서 2중 3중으로 버림받던 조선녀성들이 오늘은 남성들과 나란히 선군조선의 천리마에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새기고있다.

암흑속에서 흘러간 인류녀성사는 본질에 있어서 녀성들이 자기들을 알아주고 키워주고 빛내여줄 위대한 은인을 모시지 못한 불행의 력사였다.

우리에게 위대한 어버이가 계신다는것, 이것이야말로 조선녀성들의 최상의 행운이며 최대의 부귀영화이다.

2

천리마동상에 있는 녀성기수의 이름은 따로 없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천리마를 탄 그 걸출한 녀성은 개인이 아니라 세상을 놀래운 천리마시대를 안아온 영웅적인 조선녀성들전체의 상징이다.

력사에는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전에 지울수 없는 이름을 남긴 녀성혁명가, 녀성영웅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민족사속에도 남자들과 함께 혁명의 기관차를 억세게 몰아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떨친 녀성혁명가, 녀성영웅의 대부대는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영웅적인 녀성들입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수령결사옹위의 성스러운 력사를 개척하고 수령의 혁명동지로서의 거룩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조선혁명의 돌파구를 열고 조선혁명의 미래를 안아키우신 조선의 녀성혁명가의 전형이시다. 김정숙어머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발로 눈속에 묻힌 밀영과 싸움터들, 적후를 뜨겁게 덥히고 눈부시게 밝히신 항일전장의 찬연한 별이시였다. 그이의 따뜻한 미소와 열정에 넘치는 노래소리, 그이께서 끓여주시는 뜨거운 물로 얼음덩이가 된 가슴을 녹이며 우리 혁명대오는 조국해방의 날까지 눈보라치는 광야들과 험산준령들을 넘고 또 넘었다. 그렇듯 전설적인 녀성혁명가는 녀성들의 미덕으로 가득찬 인류신화전체를 다 헤쳐도 찾아볼수 없다.

김정숙어머님의 위대한 전기는 조선녀성들의 영원한 삶의 의무와 원칙을 깨우쳐주고 생활의 지침을 안겨주는 성스러운 교과서였다. 그것은 조선녀성들에게 위대한 수령을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선 녀성들만이 녀성천시의 력사를 자기 손으로 짓부시고 자기의 무궁한 능력을 자기들의 새 세계를 위하여, 자기들의 자식들을 위하여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었다. 그것은 조선녀성의 충정과 슬기와 의지가 초인간적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수령옹위의 성벽으로 솟아오른 녀성영웅,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최후의 시각까지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녀성혁명가 김정숙어머님을 기치로 모신 조선녀성들의 대오는 김정숙형의 충신의 대오로, 녀성혁명가들의 대부대로 억세게 자라났다.

조선녀성들은 위대한 령도자와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수령의 혁명동지들이다.

우리 혁명이 낳은 유명무명의 녀성혁명가, 녀성영웅들의 인생의 년대는 서로 다르며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들의 위훈과 공적도 각이하다. 그러나 그들의 영웅적인 삶을 줄기차게 관통하고있는 넋은 하나이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와 하나의 피줄기를 잇고 살아도 죽어도 수령만을 따르는 절대불변의 믿음이며 사랑이며 충정이다. 우리 녀성들은 80여년전에 벌써 온 겨레가 태양으로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동지라는 무상의 영광을 받아안았다.

원래 조선녀성들은 누구를 믿는다면 자신처럼 굳게 믿고 누구를 사랑한다면 온넋을 다하여 열렬히 사랑하며 누구를 위한다면 목숨까지 다 바쳐 불같이 위하는 정의롭고도 뜨거우며 절개높은 녀인들이다. 그러나 그처럼 훌륭한 조선녀성들이 력사에 남긴것은 렬녀전이나 이러저러한 미담들이 전부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선 그때부터 조선녀성들은 조국의 해방과 새 조국건설위업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녀성혁명가들로, 전승의 기적에 이어 다시한번 세상을 놀래운 천리마기적을 창조한 녀성영웅들로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이룩하였다.

우리 녀성들에게 있어서 어버이수령님은 인간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의였고 승리였다. 그 정의로운 뜻을 따르고 그 승리의 기치아래 뭉쳤기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에 찬 항일전쟁시기 수령님을 따라나선 녀성들속에서는 단 한명의 배신자도 나오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떠나 원쑤들에게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친 녀투사의 불굴의 영웅정신을 생각할수 없고 그 누가 뭐라든 오직 수령님만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태성할머니와 재더미우에서도 보란듯이 일떠설수 있다는 배심으로 수령님께 일생토록 잊을수 없는 큰 힘을 드린 락원의 녀성로동계급의 혁명적기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 허리띠를 열백번 조여매면서 장군님의 선군길을 제일먼저 끝까지 따라나선 자강도의 녀성로동계급, 그 누가 부르지도 시키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정든 집과 사랑하는 자식들을 뒤에 두고 새들도 깃을 펴기 저어하는 산중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도로를 닦고 살림집을 일떠세우는 녀성들이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녀성들이다. 이 세상에 류례없는 조선녀성들의 혁명성과 영웅성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와 함께 력사의 폭풍우를 헤치며 승리에 승리를 거듭한 불패의 강자들의 삶속에서 이루어진 불변의 넋이다.

예로부터 녀성의 인생은 가정과 자식을 위한것이라고 일러왔다. 자식을 위해 바친 생만이 후회를 모른다는 말속에는 세기를 두고 굳어진 녀성고유의 인생관이 그대로 비껴있다. 그러나 우리 조선녀성들은 자기자신과 가정과 자식들의 운명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의 운명속에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자기들의 행복했던 력사는 고이 살아있으며 더 좋은 락을 누릴 력사로 길이 이어질것이라는 불변의 신념속에 조선녀성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있고 혁명적성격이 있다. 우리 조선녀성들에게 있어서 사랑중의 최고의 사랑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며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오직 한마음이다. 장군님께서 부르시는 전선에는 언제나 우리 녀성들이 서있으며 그 숭고한 사랑과 충정으로 하여 조선녀성들의 모습은 더욱 휘황히 불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강성대국의 새 아침도 반드시 밝아온다는것이 오늘 전체 조선녀성들의 심장의 목소리이다. 우리 조선녀성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찾아 적후천리길을 헤쳐간 나어린 녀성간호원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온 불멸의 수령송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부르고 또 부르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력사속에 수령옹위의 성새를 높이 쌓아올릴것이다.

조선녀성들은 자기의 손으로 나라의 절반일을 맡아 수행하는 힘있고 슬기로운 녀성들이다.

천리마를 탄 조선녀성들의 모습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을 이루는것은 수천년세월 천대와 멸시의 쇠사슬에 묶이워 스러졌던 조선녀성들의 기개와 슬기가 자유와 평등의 새 사회, 새 세계를 창조하는 거대한 능력으로 나날이 불타오른것이다.

우리 녀성들은 조선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그 어떤 불모의 대지도 거침없이 갈아엎을 강철의 보습으로 벼려졌다. 항일의 격전장에서는 세상에 없는 녀성중대가 태여났고 전화의 불길속에서는 녀성전투영웅, 녀성보잡이들이 전선과 후방을 지켰으며 세상을 뒤흔든 천리마시대에는 인간개조의 기수, 붉은 선동원, 새 기록 창조의 주인공이 태여나 만사람을 경탄시켰다. 그가 과학자라면 최첨단연구성과로 세계과학계를 흔들고 그가 교육자라면 민족을 떨치는 인재들을 키워냈으며 그가 체육인이라면 탁구녀왕, 마라손녀왕, 축구계의 혜성으로 공화국기발을 세계의 하늘높이 휘날린 슬기롭고 용감하고 장한 녀성들이 조선녀성들이다.

조선녀성은 결코 혁명의 보조력량이 아니였다. 조선녀성은 혁명의 기본력량, 조선혁명의 한쪽수레바퀴였다. 나라의 절반일을 떠맡고 우리 조국의 전진에 힘찬 박차를 가해온 녀성들을 떠나 주체조선의 상징인 천리마를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천리마동상을 세울 때 천리마우에 남성과 녀성을 함께 앉혀주시였다.

일찌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저명한 작가는 자기의 인상담에서 조선에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국가적인 행사장의 맨 앞줄에 녀성들이 서있는것이라고 한바 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으로서 국사를 론하는 마당에서 자기의 발언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많은 녀성들이 당과 국가경제기관, 과학, 교육, 보건, 문화기관을 비롯한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있다. 조국보위초소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녀성들이 한몫크게 맡아하고있다. 지나온 녀성천시의 장구한 력사는 사실상 인류사회가 반수에 달하는 막대한 인력자원을 랑비해온 과정이였고 녀성이라는 뛰여난 능력을 수천년간이나 묻어버린 죄악의 력사였다. 조선녀성들이 인류녀성운동사에 쌓아올린 가장 큰 공적의 하나가 바로 이 반인류적인 력사를 자기의 투쟁과 생활로써 단호히 격파한것이다.

남자들과 함께 자기의 어깨로 조국의 운명을 떠받들어온 나날에 우리 녀성들은 고생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 성스러운 고생으로 우리 녀성들이 성장하였고 우리 조국이 강대해졌다. 조선녀성들의 삶의 력사는 미덕을 쌓는 고행의 력사가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개척한 첫 녀성영웅들의 력사였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격전장은 우리 녀성들이 력사적으로 키우고 다져온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총폭발시켜 인류앞에 조선녀성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투쟁과 위훈의 활무대이다. 오늘 우리 녀성들이 발휘하는 능력은 말이나 글로써는 다 설명할수 없이 거대하다. 20세기 초엽까지도 개울건너 마을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도 몰랐던 우리 녀성들이 21세기 최첨단시대에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늘 조선녀성들의 위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어주시는 총공격전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최첨단에 있다. 조국의 밤하늘가에 불을 안고 날아오르는 천리마의 기상에는 대지를 박차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녀성의 높은 리상과 포부, 슬기와 기개가 어려있다.

녀성들에게는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개척할 위대한 힘이 있으며 녀성들이 일떠설 때 이 세상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이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말해주는 진리이다.

조선녀성들은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풍모를 지닌 혁명의 꽃, 나라의 꽃이다.

오늘의 세계에는 녀성문제와 관련한 각양각색의 주의주장들이 범람하고있다. 반동적인 사이비녀성론은 남녀불평등의 근원을 생물학적견지에서 고찰하면서 남녀가 평등하자면 《성별의 차이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그 반인류적인 주장을 따르는 나라들에서는 남성이 녀성화되고 녀성이 남성화되여 남성다운 남성도, 녀성다운 녀성도 찾아볼수 없는 말세기적인 풍조가 만연되고있다.

남녀평등리상이 외곡되여 인류를 타락에로 이끌고 《세계화》의 파도가 휩쓸어 녀성의 아름다움이 모독당하는 광란의 시대에 우리 당이 이룩한 또 하나의 공적은 우리 녀성들을 조선녀성고유의 모습으로 고이 지켜준것이다.

인간의 변질 특히 녀성의 변질은 자연의 오염에 대비할수 없는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한다. 녀성들이 정신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사회가 부패해지고 민족의 고유한 모습이 사라지며 나라의 전도가 어두워진다. 녀성들을 더더욱 녀성적인 녀성으로 아름답게 가꾼것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언제나 생기와 활력을 잃지 않았고 우리의 사회주의는 화목하고 행복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밝고 창창한 앞날을 가진 전도양양한 사회로 되였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 랑만과 희열을 안겨주고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는 우리 녀성들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 그 정이 바로 조선녀성의 특출한 매력이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선녀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녀성들이라고 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의 이 말씀의 참뜻을 가장 어려웠던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며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우리 녀성들은 집단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 안해, 며느리로서의 모든 부담을 어느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다. 평범한 나날에도 쉽지 않았던 녀성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느라 우리 녀성들은 밤잠도 줄이고 누구도 몰래 허리띠도 더 조였다.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 애지중지 키운 어머니들, 병사들의 누이가 되고 어머니가 되여 더운물을 나르고 불돌을 나르며 천리방선을 병사들의 고향집 아래목처럼 덥힌 군관의 안해들이 우리 조선녀성들이다. 이런 어머니, 이런 안해, 이런 누나들이 키운 고난의 행군 세대들이 지금 조국보위초소들과 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들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다. 그 녀성들이 허리펼새없이 받들고 내세운 남편들과 오빠, 동생들이 민족의 지성을 겨루는 마당에서 조선민족의 슬기를 떨치고 주체조선의 하늘가에 인공지구위성을 띄웠으며 이 땅에 CNC와 주체철, 주체비료, 비날론대경사를 안아왔다. 선군시대 새로운 천리마의 기적은 이렇듯 우리 녀성들의 사랑과 헌신에 떠받들려 창조되였다.

우리 녀성들은 모든 고생을 락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이 쌓아올린 공적을 계산하지 않는다. 조선녀성들은 이렇듯 고결하고 이렇듯 아름답다. 하기에 이 땅에서는 《준마처녀》의 노래와 함께 《우리 집사람》의 노래가 그토록 만사람의 사랑속에 높이 울리고있는것이다.

바로 그 고마운 녀성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아침이 시작되고 위대한 우리 조국의 새날, 새 진군의 발동이 걸린다. 날마다 집집의 창가마다에 새날의 첫 불을 켜는 사람들이 우리 녀성들이고 온 가족을 일터와 학교로 정답게 떠미는 사람들이 우리 녀성들이다. 자기의 심장으로 전투장을 덥히고 자신의 사랑으로 전투장을 밝히며 자신의 열정으로 전투장을 들끓게 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딸들, 조선녀성들이 있어 강성대국이 앞당겨오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강산에 메아리치는 그날에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은 제일먼저 녀성들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드릴것이며 우리 녀성들은 자기의 세기적숙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인류력사상의 첫 녀성들이 될것이다.

⁘ ⁘

21세기 조선녀성들의 운명은 위대한 장군님의 백전백승의 령도속에 있다. 위대한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속에 아름답게 피여있는 꽃들이 바로 우리 조선녀성들이다.

태양이 빛나는 한 그 어떤 폭풍이 불어도 꽃들은 영원히 지지 않는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높이 날으는 천리마가 그것을 증명할것이다.

정 춘 희, 박 성 녀

보다 큰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설 불같은 열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떨쳐나선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자력갱생의 전통을 빛내이며 비약의 한길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이곳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려 현대적인 대형굴착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설기계들을 창안제작하는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얼마전 또다시 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이 만든 《장백》호굴착기의 작업모습과 기술개건된 일터들을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린 락원의 로동계급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부대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락원의 로동계급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련속 승리의 개가를 높이 올리고있다.

지난 1월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며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시였다. 뜻깊은 이날 락원로동계급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높이 치하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장들에 굴착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데 대한 전투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1950년대에 발휘하였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일대 비약을 일으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온 락원땅이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일터마다에서 대중을 새로운 혁신과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리면서 대고조시대의 지휘성원답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였다.

생산의 선행공정을 담당한 장비직장의 로동자들은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어 굴착기생산에 필요한 지구장비와 각종 형타들을 제때에 보장하였으며 주강직장의 전투원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설비개조를 다그쳐 생산성을 부쩍 높이고 바가지, 권양틀, 선회대치차를 비롯한 덩지큰 주강품들을 손색없이 만들어냈다. 청년직장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주권양기를 비롯한 부분품의 가공과 조립을 힘있게 다그칠 때 유압기구직장과 감속기직장에서는 여러가지 생산품의 정밀도를 고도로 세밀하게 보장하면서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비약의 열풍은 총조립을 맡은 대형조기직장에서도 세차게 휘몰아쳤다. 가공작업반원들은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매일 과제를 두배이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대형작업반과 조립작업반원들은 부분품가공 및 조립에서 종전보다 1.5배의 속도를 창조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제관직장과 일반기계직장, 열처리직장에서도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맡은 일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업소를 다녀가신지 석달 남짓한 기간에 새로운 《장백》호굴착기를 훌륭히 창안제작하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조국과 시대앞에 불가능을 모르는 락원로동계급의 본때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자력갱생의 전통을 빛내이며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갔다. 특히 대형조기직장의 로동자들은 새로운 굴착기제작에 필요한 부분품가공에서 이전보다 최고 3배이상의 속도를 기록하였으며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높은 질적수준을 보장하면서도 조립기일을 훨씬 단축할수 있게 하였다. 일반기계직장의 전투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수십개에 달하는 치차가공과 로라조립작업을 불과 며칠동안에 불이 번쩍나게 해제꼈으며 제관직장의 로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일감을 두몫, 세몫씩 맡아 매일 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였다. 유압기구직장과 열처리직장, 단조직장을 비롯하여 굴착기생산으로 들끓는 련합기업소의 모든 일터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였다.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또다시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만든 대형굴착기를 친히 보아주시며 락원의 로동계급이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거듭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락원의 로동계급은 언제나 자기들을 잊지 않으시고 따사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무조건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신념의 맹세드높이 락원의 로동계급은 오늘도 경제강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새로운 대고조진군속도를 창조해가며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비상한 탐구정신과 열정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최첨단돌파전의 앞장에는 당의 품속에서 과학기술인재들로 자라난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서있다. 이들은 불타는 애국심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한 사업에 자신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락원건설기계설계연구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설계원들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과 연구토론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 모두가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이곳 설계원들은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종이 간편하면서도 능률높은 굴착기를 우리 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에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특히 김봉철, 리명호동무들은 뽐프시험대의 설계를 한주일동안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고 련이어 변시험대설계에 착수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문영성동무는 주요부분품의 설계를 자진하여 맡아 밤낮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려 손색없이 완성하였다. 다른 기술자들도 비상한 탐구정신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굴착기의 중요장치들의 종전설계를 현실조건에 맞게 갱신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례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키였다.

련합기업소 기술과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설계원들과 힘을 합쳐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짜고들면서 《장백》호굴착기의 무한궤도조립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또한 이들은 청년직장과 일반기계직장의 부분품가공과 조립에서 기술적으로 걸린 고리들도 즉석에서 풀어주었다.

기술발전과에서는 기계설비의 전동장치를 개조하여 콤퓨터로 조종할수 있도록 현시판을 비롯한 여러 부분들에 대한 설계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기대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필요한 가공품을 하나하나 마련하여 유압기구직장의 CNC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정보기술부문의 재능있는 청년기술자들이 강자의 자존심과 배짱을 안고 모든 생산공정들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이들은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각종 형타가공과 업무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람들을 높은 수준에서 특색있게 개발하였다.

전자조종장치실의 기술자들은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새로운 조종체계를 받아들일수 있게 하였다.

녀성기술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돌파전에 용약 뛰여들어 설계와 기술자료의 연구보장에서 당당히 한몫 맡아 해제끼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오랜 기술자들도 청년기술자들과 함께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현대적인 기계설비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모든 기술자들은 자기들을 한품에 안아 유능한 기술인재들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오늘도 비약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CNC화의 자랑 넘친다

유압기구직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여기는 총진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장백》호굴착기조립전투장이다.

지금 여기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락원의 로동계급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각종 설비들의 힘찬 동음, 천정기중기에 매달려 분주히 오고가는 크고작은 부분품들, 드넓은 전투장의 곳곳에 나붙은 힘있는 글발들, 불보라를 흩날리는 용접기들…

제관, 용접 등 모든 작업이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조립전투장의 한가운데 서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신심과 열정에 넘친 전투원들의 장한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야말로 온 전투장이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대형조기직장의 기대들이 힘찬 동음을 울리며 기운차게 돌아간다. 선반마다에서 바이트날들이 쇠밥을 줄줄이 말아올리고 규모있게 늘어선 볼반, 형삭반, 연마반들에서 가공된 소재들이 연방 떨어져나온다. 결패있어보이는 기대공이 커다란 타닝반을 마음먹은대로 능숙하게 다루며 치차가공을 해나가는 일솜씨는 더욱 볼만하다.

맞은편에서는 제관직장의 제관공들이 기세를 올리며 부분품제작에 여념이 없다. 운전공이 숙련된 솜씨로 조작을 하자 프레스가 기운차게 용을 쓴다. 이에 뒤질세라 다른 작업장에서는 플라즈마절단기가 시퍼런 불줄기를 날리며 두터운 철판을 두부모베듯 척척 잘라낸다. 천정기중기가 부지런히 오가며 덩지큰 부분품들을 물어나른다.

창조의 동음드높은 작업장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대형굴착기의 조립작업에 박차를 가해나가는 로동계급의 억센 기상이 확연히 안겨온다.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들의 얼굴마다에 굴착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불같은 열의와 철석같은 의지가 한껏 비껴흐르고있다.

현지보도

창조의 동음높은 일터

◇《장백》호굴착기조립전투장에서◇

《1950년대에 발휘하였던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현대적인 기계설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려는것은 우리 락원로동계급의 철석의 의지입니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대형조기직장 직장장동무가 생산실적을 보여주며 확신성있게 말한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현장속보판에 혁신의 새 소식이 나붙는다.

전투장에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는 속에 완성된 각종 부분품들이 조립되여 어느덧 또 한대의 대형굴착기가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백》호굴착기를 돌아본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유압기구직장으로 취재길을 이어갔다.

직장에 이르니 규모있게 자리잡은 생산건물과 푸르싱싱한 잔디밭들, 알뜰하게 포장된 주변으로 하여 무척 산뜻해보이였다. 작업장에서는 눈부신 해살이 비쳐드는 속에 갖가지 크고작은 설비들이 줄지어 늘어서 기세좋게 돌아가고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직장장동무가 은빛동체를 번쩍이는 설비들을 가리켜보였다.

《이 기대들이 바로 얼마전 우리 일터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보아주신 설비들입니다.》

우리는 곁모습부터가 멋쟁이인 CNC설비들의 작업모습을 한참이나 흥미있게 보았다. 제품의 가공정형이 한눈에 안겨오는 전자게시판과 밀폐된 기대안에서 고속으로 돌아가는 가공공구, 밝은 조명아래 미세한 쇠밥을 말아올리며 순식간에 완성되여가는 가공제품…

직장의 처녀기대공들의 말에 의하면 CNC설비를 사용하면서부터 생산성은 단번에 몇배로 껑충 뛰여오르고 제품의 정밀도도 종전보다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는것이다. 직장에서는 수십대의 CNC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고 해당 부문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현대화한 기대들도 받아들여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고있었다.

흐뭇한 마음을 안고 CNC설비들을 차례로 돌아본 우리는 현장에 있는 콤퓨터조종실에도 들려보았다. 여기서는 콤퓨터들을 리용하여 유압기구의 시험대를 조종하고 설비들의 제품가공에 필요한 프로그람들을 작성하여 보장하고있었다.

돌아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CNC화된 일터에는 자랑도 많았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생산건물을 훌륭히 개건한것이며 기술자, 기능공들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인 사실 등 현대화의 나날에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발휘한 전투적인 투쟁기풍에 대한 이야기는 감동적이였다.

참으로 직장의 그 어디에나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락원로동계급의 완강한 투쟁기풍과 혁명적인 일본새가 그대로 비껴있었다.

우리는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앞으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고조진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리라는 확신을 안고 직장을 나섰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사과딸 때 여기에 다시 오시라

종합적사과생산기지로 일떠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살아온 삼천리금수강산을 우리 시대에 와서 더 잘 보호하고 더 잘 꾸려 풍치수려하고 여러가지 열매들이 주렁지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일떠서고 나날이 희한하게 변모되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겨울에는 지지대들이 열병식을 하듯 지평선한끝까지 장관을 펼치고 봄에는 흰구름이 내려앉은듯 하얀 사과꽃바다를 펼쳤던 원흥땅, 무성한 잎새들이 푸르러 설레이는 이 여름에는 또 어떤 장쾌한 모습을 펼쳐놓았을것인가.

우리는 그 모습을 전하기 위하여 과수종합농장을 다시 찾았다.

꿈같이 펼쳐진 사과바다

우리가 탄 취재차가 평양시 교외로 뻗은 도로를 따라 삼석구역의 높고낮은 구릉을 누비며 원흥땅에 들어선것은 한낮이였다.

멀리 나지막한 야산들에 둘러싸여 분지를 이룬 낯익은 원흥땅이 우리를 반겨맞아주는듯 싶었다.

마중나온 조선인민내무군의 한 지휘관이 우리를 먼저 지난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전망대로 안내하였다.

전망대에 올라서는 순간 우리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드넓은 대지를 적시는 대동강도, 그 품에 흘러드는 원흥천이며 저 멀리 봉화갑문의 모습도 변함이 없건만 이렇게도 몰라보게 달라질수 있는가.

지난해에 우리가 무릉도원에 담아 격찬했던 과원이 이해 봄에 왔을 때에는 그 면적을 근 5배나 늘인 일망무제한 사과꽃바다로 변모되여 놀라움을 자아내더니 오늘은 억만잎새들이 미풍에 설레이는 과수의 푸른 바다로 또다시 새 모습을 펼친것이다.

눈뿌리 아득한 푸른 들은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원흥땅은 말그대로 푸른색일색으로 단장되여있다. 과원의 곳곳으로 그물처럼 뻗어간 포전도로와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을 배수로들은 해빛에 반사되여 눈부시다.

산기슭에 오붓하게 새로 들어앉은 문화회관과 학교, 유치원과 리상점 그리고 합각지붕의 문화주택들은 정든 포구에 닻을 내린 크고작은 배들같고 과일보관고와 과일말린편공장은 인민의 행복을 실어나를 거대한 수송선같다.

이보다 더 훌륭하고 장쾌한 절경이 있을상싶지 않았다.

여기를 돌아본 외국인들이 아시아의 등대라고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를 터뜨렸던 일도 벌써 옛말이 되였다.

참으로 인민이 무시된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과원,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오직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생겨날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조물이다.

지난해 11월에도 오시고 올해 6월에도 오시여 원흥땅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끝없이 넓어지는 원흥의 사과바다, 나무를 심은 그해에 벌써 열매바다를 펼친 완전히 성공한 세계적인 농장!

원흥땅의 현실은 우리가 그처럼 바라고 소원해온 리상과 포부의 고귀한 결실이고 바라볼수록 이것이 내가 사는 내 나라,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로구나 하는 긍지와 환희로 가슴부풀게 하는 시대의 생동한 화폭이다.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만 안겨오지 않는 과수의 푸른 바다에 한시바삐 뛰여들고싶은 심정을 안고 우리는 서둘러 전망대를 내려섰다.

열매는 무엇을 속삭이는가

과원의 바다에 들어선 우리의 눈앞에 열매의 바다가 펼쳐진다.

봄철에는 구름꽃 하얗게 피고 가을에는 알알이 붉게 익었소 하는 노래가 절로 흘러나온다.

《이 사과가 저절로 크고 익는것은 아닙니다. 땀을 묻고 진심을 묻은것만큼 열매가 충실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안내하던 지휘관동무가 웃으며 하는 말이다. 그 말을 듣고보니 분무기를 메고 약을 뿌리는 사람들과 김을 매는 사람들의 얼굴에 흐르는 구슬땀이 무심히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사과꽃바다가 열매바다로 되기까지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투쟁이야기를 들으며 그 끝을 알수 없는 과원길을 걸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갓 맺히기 시작한 애어린 열매들을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온갖 피해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심각한 전투가 벌어졌다. 한편으로는 여러 대상건설과 과수원능력확장공사를 하면서 비배관리까지 책임적으로 한다는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였다.

찌물쿠는 무더위속에서 농약뿌리기작업이 밤낮없이 진행되였다.

나비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숱한 자재와 도구들을 구하느라 수백리 먼길을 줄달음쳐오가던 이야기, 피해를 입은 한그루 사과나무를 살리기 위해 몇밤을 꼬박 새우며 애쓰던 이야기…

실로 들을수록 가슴을 후덥게 하여주는 이야기들이였다.

봄이 심장의 열기로 사과꽃을 피운 계절이라면 이 여름은 열매가 알알이 무르익도록 땀과 량심을 바쳐가는 뜨거운 계절이였다.

이야기에 얼마나 심취되여 걸었던지 어느새 우리는 과원의 한끝에 이르렀다.

물소리정다운 내가에서 다리쉼을 하던 우리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아안게 되였다.

안내하던 지휘관이 이 과원의 무수한 사과알수를 모두 세여놓았다고, 나날이 커가는 사과알의 크기를 매일 재여본다고 말하는것이 아닌가.

한주일에 직경 수mm씩!

아침안개 서린 과원에서 사과 한알한알을 보물처럼 싸쥐고 조심히 자를 대여보는 모습들이 뜨겁게 어려왔다. 행복의 열매가 한시바삐 무르익기를 얼마나 목마르게 바랐으면 그랬겠는가.

—이 과원의 모든 사과알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아주시고 그이의 기억속에 있는 사과알들처럼 충실하게 키워 인민들에게 알알이 골라보내주어야 한다.

이런 자각을 안았기에 이들은 관리자의 이름과 함께 관리해야 할 사과알수까지 적어넣은 하얀 표말들을 구간마다에 세우고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고있는것 아니랴.

참으로 이 과원의 수천만개 사과알들은 이들의 순결한 량심과 헌신의 결정체였다.

깊어지는 감동속에 발목이 시도록 드넓은 과수원을 돌아보느라니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과수원의 여기저기에서 나비등들이 하나둘 빛을 내며 타오른다.

수천개의 나비등들이 모두 불을 지핀 드넓은 들판은 마치도 밤하늘의 별무리가 그대로 내려앉은것만 같았다.

낮에는 지지대들이 과수원을 가꾸어가는 내무군군인들의 헌신적복무자의 모습으로 안겨들고 밤에는 또 나비등불빛이 열혈투사들의 애국의 눈빛으로 안겨드는 원흥땅,

사과는 달고 향기롭다.

그러나 사람들이여, 크고 향기로운 사과를 한아름씩 받아안을 때 그 맛과 향기에 무심히 취하지 마시라.

바로 그속에 슴배인 우리 내무군병사들의 땀과 지성의 무게를 부디 함께 새겨안으시라.

더 좋은 래일이 우리를 부른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살림집에서 집주인들과 끝날줄 모르는 사랑과 행복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옛날 이름이라도 잘 지으면 잘살게 되지 않을가 고대하며 흥할 흥자를 고장의 이름에 달았다는 지명유래로부터 시작된 주인집할머니의 이야기는 도무지 끝이 있을상싶지 않았다.

불편한 점 하나없이 편리하게 설계되고 현대적인 가구가 갖추어진 문화주택에서 메탄가스곤로를 쓴다는 자랑, 배울 걱정, 치료받을 걱정이 뭔지도 모르는 손자애들이 텔레비죤앞에서 도저히 떠날줄 모른다는 이야기…

《이게 다 장군님의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 은덕에 보답하라고 내 힘자라는껏 자식들의 등을 떠밀어주고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 할머니의 심정만이라 하랴.

나날이 꽃피는 행복의 원천, 번영의 밑뿌리에 대한 깊은 생각속에 우리는 원흥땅의 곳곳에로 걸음을 이어나갔다.

원흥땅 그 어디서나 날로 더욱 꽃피는 사회주의 우리 생활에 대한 찬가가 꾸밈없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참으로 여기 원흥땅은 나날이 행복의 가을이 무르익는 내 조국의 축도이다.

그러나 더 놀라운 화폭이 과일보관고며 과일말린편공장들에서 속속 펼쳐지고있었다.

넓기는 얼마나 넓고 크기는 얼마나 큰지 과일보관고는 말이 보관고이지 열병광장같았다. 복도량옆으로 길게 늘어선 현대적인 랭동설비들에는 지난해 과수밭에서 수확한 첫 생산품들인 크고 윤기도는 사과들이 그득그득 쌓여있었다.

흐뭇한 그 광경에 눈길을 주고 섰느라니 마치 풍요한 가을의 전야한복판에 서있는듯 한 심정이였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쪽에는 그 이름도 이채로운 과일말린편공장이 자리잡고있었다.

우리는 위생복차림으로 생산이 한창인 공장안을 돌아보았다. 알른알른한 바닥타일들이며 정결한 유리막들과 창가림막…

은백색의 가공설비들이 생신한 사과알들을 과일말린편으로 가공하여 포장까지 하고있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로 신비스러웠다.

그런데 그 모든 공정을 처녀조작공 혼자서 다 조종한다는것이 아닌가.

지난 6월 이곳을 찾으시여 이 생산공정의 완성을 위하여 벌려온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집단의 투쟁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잘했다고, 그래서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것이라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날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또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남겨주셨던가.

사과를 딸 때에는 심은 사람들이 모두 와서 따게 해야 할것이라고 호탕한 웃음속에 로력문제를 풀어주시고 이제 사과를 따면 보관고에 쌓아두지 말고 인민들에게 빨리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

정녕 자나깨나 인민의 행복만을 생각하시는 어버이 그 사랑이 있어 수세기동안 농토로 되였던 땅이 사과바다로 전변되고 사과꽃은 사과꽃물로, 사과알들은 사과말린편으로 그 품종을 늘여가고있다.

우리의 생활은 이렇게 행복에서 행복에로 아지를 치고있는것이다.

실로 뜨고싶지 않은 고장이였다.

앞으로 여기에 자체로 키낮은사과나무모를 생산하는 나무모밭도 생겨나고 돼지공장도 일떠서게 된다는 이야기는 들을수록 세찬 격정을 자아냈다.

누구나 눈앞에 펼쳐진 청춘과원의 전경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할 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세계적인 대농장으로 꾸리실 더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것이다.

그렇다. 여기에 펼쳐진 사과바다는 위대한 장군님 펼치신 사랑의 바다이다.

그 끝간데 없는 바다에 실려 인민의 행복이 물결쳐가고있다. 이런 농장들이 지금 고산땅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각지에 일떠서고있다니 머지않아 온 나라에는 과일바다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원흥땅과 더불어 행복의 오곡백과, 인민의 만복이 무르익는 내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이곳을 떠나는 우리의 귀전에 원흥땅주인들의 긍지에 넘친 목소리가 쟁쟁하다.

《사과딸 때, 풍요한 가을날에 다시 오시라.》

손 소 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인간사랑의 화폭

평양산원에서 지난 30년간 673만여명의 녀성들에 대한 의료봉사 진행, 근 400쌍의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을 비롯한 71만여명의 새 생명 출생

온 나라에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때에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속에서 사랑의 요람으로 불리우고있는 평양산원이 창립 30돐을 맞이하고있다.

주체69 (1980) 년 7월 30일은 절세의 위인들의 어버이사랑과 우리 당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에 의하여 평양산원이 창립된 뜻깊은 날이다.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시책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며 지난 30년간 평양산원은 녀성들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서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연건평 6만㎡에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높이 솟은 평양산원은 1 500대의 침대와 최신식의료설비들로 그쯘히 갖추어진 종합적인 녀성의료봉사기지이며 나라의 산부인과연구중심, 전국적인 산부인과부문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방법론적지도를 다같이 수행하는 모체기관이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양산원에서는 창립후 오늘에 이르는 30년간 673만여명의 녀성들에 대한 각종 형태의 의료봉사를 진행하여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켰으며 71만여명의 새 생명을 받아 건강히 키워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중에는 근 400쌍의 세쌍둥이, 네쌍둥이들도 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에서 녀성들이 1만US$가 있어야 안전하게 해산할수 있다고 한 외신보도자료대로 환산한다면 평양산원에서 태여난 71만여명의 어린이출생을 위해 바쳐진 해산방조비만도 무려 71억US$계선을 넘어선다.

이밖에도 최중증, 중증환자들에 대한 2만 3 000여차의 소생전투, 근 400쌍의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의 출생과 보육을 위한 의료활동, 673만여명의 녀성들에 대한 여러가지 형태의 의료봉사에 리용된 비용은 천문학적수자를 기록하고있다.

지난 30년간 평양산원에서는 우리 녀성들뿐만아니라 7 000여명의 외국녀성들도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받아안았다. 그들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진달래》, 《솔매》, 《새별》, 《마설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친선동이들의 어머니들도 있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관람을 위해 평양에 왔다가 이곳 산원에서 해산방조를 받은 남조선녀성도 있다.

30년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온 평양산원은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는 사랑의 궁전이며 어머니 우리 당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노래하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행복의 요람이다.

오늘 평양산원이 세상사람들 모두가 경탄하는 최상급의 녀성의료봉사기지로서의 자기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데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우리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보시고 혁명활동전기간 녀성들의 존엄과 지위, 그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깊이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북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울려퍼지던 1960년대말에 훌륭한 산원을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받들어 주체68 (1979) 년 2월 14일 력사적인 산원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건설 전기간 130여차에 달하는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여러차례의 현지지도를 통하여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세계최상급의 산원이 일떠서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산원이 창립된 후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념원을 안으시고 수백차에 달하는 귀중한 가르치심과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여 평양산원이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산원 의료집단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기 바랍니다라는 사랑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여 그들이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평양산원 의료집단은 산원안에서의 의료봉사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는것과 함께 13만여차에 달하는 구급왕진을 하였으며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대홍단군의 농장들, 평양방직공장,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장들과 나라의 여러 지역과 단위들에 나가 현장의료봉사를 높은 과학기술적수준에서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특별조치에 따라 지방에서 태여난 세쌍둥이들과 그 산모들의 후송을 위해 16차에 걸쳐 사랑의 비행기가 날았으며 달리는 소생실로 불리우는 구급차가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누비며 사랑의 경적소리를 울리였다.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산원에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부러워하는 최신식의 조산아집중보육기들과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일식으로 갖추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만도 유선암촬영기, 수자식렌트겐설비, 3차원복부초음파진단기, 위생용산소생산설비, 륜전기재들을 비롯하여 1 000여대나 되는 현대적인 의료 및 경영용설비들과 기구들을 보내주시여 평양산원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울수 있게 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쌍둥이들, 네쌍둥이들이 많이 태여나는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을 받드시여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태여난 전국의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에게 사랑의 은장도와 금반지를 안겨주시는 전설같은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산원이 각 도산원과 시, 군, 리인민병원, 종합진료소 산부인과들의 모체병원으로서 전국의 아래단위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와 방법론적인 지도를 책임적으로 하는 한편 치료예방사업과 과학연구사업, 림상교육 및 후비양성사업도 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지금까지 평양산원에서는 출생전태아진단법과 무통해산법, 세쌍둥이임신부와 갓난아이관리방법, 복강경에 의한 수술방법을 비롯한 540여건의 새롭고 가치있는 치료방법을 연구개발하여 림상실천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산부인과분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 나날에 교수, 박사를 비롯한 학위학직소유자들의 대렬이 창립초기에 비하여 23배로 늘어났으며 나라의 의학과 학기술발전과 인민보건사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전 10권으로 된 《산부인과전서》와 《산원의사독본》 등 백수십권의 가치있는 의학도서들이 집필발행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또한 무통해산약과 지혈제를 비롯한 180종의 의약품과 대중약품들이 연구개발되였으며 10여개의 새로운 전문과들이 더 늘어나 산부인과의료봉사의 계통별전문화수준이 높은 단계에서 실현됨으로써 우리 녀성들과 태여나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산원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며 공로있는 의사, 간호원, 조산원들에게 로력영웅, 공훈의사, 공훈간호원, 공훈조산원의 값높은 영예도 안겨주도록 하시였으며 종업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일하도록 살림집들도 마련하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평양산원에 돌려지는 우리 당의 숭고한 사랑과 은정은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더욱 뜨겁게 미쳐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들이 건강해야 애기들이 건강하고 조국의 미래가 담보된다고 하시며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30여차에 걸쳐 산모들에게 산꿀을 비롯한 수많은 보약재들과 영양식품들을 보내주시였다.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있던 시기 평양산원에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으며 갓 태여난 아기와 산모들의 퇴원길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평양승용차사업소에 산원중대까지 내오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아기와 산모를 실은 승용차들이 시내의 거리들을 경쾌하게 달리였다.

우리 당력사에 변이 난 해로 기록된 2009년에만도 평양산원에서는 140쌍의 쌍둥이, 세쌍둥이들을 비롯하여 근 2만명의 아기들이 태여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을 기쁘게 해주었다.

어머니의 따사로운 품과도 같은 평양산원에서 생의 고고성을 터친 복받은 새 생명들이 오늘은 어엿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여 조국보위초소와 부강조국건설의 전렬에 서있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인 발사, 지하핵시험의 성공,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의 성공과 같은 선군조선의 고귀한 창조적재부를 마련한 기적의 주인공들속에는 다름아닌 우리 당의 사랑을 젖줄기로 하여 성장한 평양산원과 각 도산원태생들도 있다.

평양산원창립당시 사랑의 궁전에서 태여난 세대들이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여 새 생명을 받아안으며 대를 이어 복된 삶을 꽃피워주는 어머니당에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참으로 평양산원과 같은 사회주의복이 차고넘치는 사랑의 궁전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

100여개의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온 10만여명의 외국인들과 수많은 해외동포들, 남조선인민들이 평양산원을 참관하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희한한 녀성종합병원을 보았다고 하면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고매한 덕망과 조선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깊이 느꼈다. 이처럼 현대적설비를 갖춘 인류리상의 녀성궁전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조선에서만이 세워질수 있다. 이런 훌륭한 산원이 이미 수십년전에 세워졌다는 그자체가 경탄할만 한 일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오늘 평양산원창립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당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정치가 구현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고있으며 고마운 우리 당, 우리 제도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오늘 우리 민족과 진보적인류는 평양산원을 통하여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을 보고있으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어머니라는 부름과 함께 불리우는 조선로동당의 사랑의 정치를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 조선로동당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평양산원에 차넘치는 복의 력사는 계속 흐를것이다.

글 본사기자 오 현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가 웰남농민동맹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웬 꾸옥 끄엉 농민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농민동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길상봉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레 반 끄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단장은 방문기간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로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친선련환모임 진행

【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로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한 친선련환모임이 28일 릉라도유원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림시대리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국립민족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출연자들은 녀성독창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울려가라 나의 노래》, 혼성2중창 《까투리타령》, 가무 《요일풀이노래》를 비롯한 종목들을 펼치였으며 《등불》, 《깔린까》 등의 로씨야노래들을 잘 불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도 공연에 출연하였다.

계속하여 다채로운 체육유희오락경기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친선》팀과 《단결》팀으로 나뉘여 배구경기를 하고 공안고 공이마대고 달리기, 윷놀이 등에서 승부를 겨루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독자의 편지 우리 할머니

저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평양민속공원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펜을 든것은 우리를 위해 물심량면의 지성을 바치는 한 할머니를 소개하고싶어서입니다. 그는 중구역 중성동 14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리석순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처음 찾아온것은 지난해 4월이였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우리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대성구역 안학동에 있는 딸의 집에 거처를 옮기고 수시로 건설장을 찾군 하였습니다.

철따라 과일들과 성의껏 마련한 갖가지 음식들을 가져다 식탁에 놓아줄 때 우리는 모두 고향집 친부모의 애틋한 정에 눈굽을 적시였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원호물자도 안겨주고 선동사업도 하면서 우리 군인건설자들을 고무해주는 나날에 할머니가 인민군대원호사업을 더 잘하자고 가족들과 가진 모임만도 10여차에 달한다고 합니다.

리석순할머니는 올해 건군절에도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 건설장을 찾아왔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자리에 누웠을 때에는 대신 딸을 보내여 우리를 고무해주었고 중성동에서 함께 사는 자식들이 데리러 왔을 때에는 군인들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그들을 돌려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민속공원건설과 우리 군인건설자들을 위해 바치는 로인의 진정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기간에 부대적인 사회주의경쟁들에서 련속 우승의 영예를 지닌데는 리석순할머니의 노력도 적지 않게 깃들어있습니다.

하기에 우리들은 할머니를 가리켜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 황 석 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는 일찌기 볼수 없었던 새로운 높이에서 발현되고있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강동군 대리로동자구에 있는 장철만동무의 집에는 밤깊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롭게 변모된 백두산지구의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던것이다.

장철만동무와 가족들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백두산지구를 더 잘 꾸리는 사업에 자기들의 지성을 바쳐갈 의논을 진지하게 하였다. 하여 건설자들에게 필요한 솜옷과 신발, 어깨받치개와 장갑 등 많은 량의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현지에 보내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백두산지구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해마다 계속되였다. 장철만동무는 매월 지원물자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생활화하였다.

어느해 여름, 지원물자를 가지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장을 찾았던 장철만동무는 일부 부속품들이 부족하여 건설설비들을 가동시키는데 지장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집에 돌아온 그는 휴가를 며칠 받고 어느 한 기계공장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꼬박 새우며 필요한 설비부속품들을 마련한 그는 그것을 백두산지구건설자들에게 보내주어 건설의 속도를 훨씬 높이게 하였다.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장철만동무는 618건설돌격대 강동군대대에 수시로 전화를 하여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해결하여 보내주는 사업을 정상화하였다.

그의 안해인 김옥경녀성도 혁명의 성지로 달리는 남편의 뜨거운 마음에 자기의 진정도 합쳐갈 일념으로 직장일이 바쁜 속에서도 밤을 새우며 건설자들에게 보내줄 지원물자마련에 심혈을 기울이였다.

지난해 3월 어느날이였다. 한 모임에 참가한 장철만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돌격대원가족들의 생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는 자책감에서였다.

그날부터 장철만동무는 군안의 여러 단위에서 618건설돌격대에 탄원해나간 전투원들의 집주소를 알아 수첩에 적어넣었다.

그리고는 가족모임을 열고 돌격대원가족들의 생활을 잘 도와주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다음날부터 장철만동무와 가족들은 돌격대원들의 가정에 찾아가 그들이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진정을 기울였다.

하기에 언제나 백두산을 가슴에 안고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그를 돌격대원들과 가족들은 친혈육처럼 생각하고있는것이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에 순결한 충정을 바쳐온 그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철만동무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한길에 보람차고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변함없이 새겨가고있다.

박 준 성

웰남농민동맹대표단 귀국

【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웬 꾸옥 끄엉 농민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농민동맹대표단이 28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길상봉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레 반 끄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사랑의 대지에 피는 정성의 꽃

개천철도국병원 간호원 한순희동무

지난 4월 개천철도국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병원 소아과의 한 간호원에게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다.

자기의 붉은 피와 정성을 바쳐 두 어린 생명을 구원한 한순희동무는 연단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소행은 우리 시대 의료일군이라면 누구나 발휘할수 있는 평범한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값높이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처녀간호원의 소박하고 깨끗한 진정이 만사람의 가슴을 울리였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미더운 새 세대 한순희동무, 그가 간직한 아름다운 마음의 뿌리는 무엇이며 어찌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소행이 산과 들에 수많은 들꽃처럼 평범한것으로 되고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올해 3월 어느 일요일 새벽이였다.

누구나 단잠에 든 그 시각에 개천철도국병원 소아과에서는 두돌이 갓 지난 어린 환자를 놓고 긴장한 치료전투가 벌어졌다.

《선생님, 우리 애가 살수 있을가요?》

어깨에 별을 단 군관과 그의 안해가 벌써 몇번째 이렇게 묻고있었다. 그들은 새 파견지로 가던중이였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최중증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렬차에서 급히 내려 개천철도국병원으로 달려왔던것이다. 그들의 절박한 물음에 담당의사인 신성희동무는 선듯 대답을 못하였다.

급성의 악성질병이 어린 생명을 시시각각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가고있었다. 인공호흡이며 약물주입, 마싸지 등 그가 연방 내리는 구급치료지시를 준의 라은주동무와 함께 간호원 한순희동무가 집행하고있었다.

내과에서 일하다가 소아과로 온지 얼마 안되는 한순희동무는 긴장한 속에서도 어린 환자 박세덕의 얼굴을 자주 들여다보았다. 군인가정의 첫 아들, 그 귀중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수 있단 말인가.

그때였다.

《남은 방도는 수혈뿐입니다. 피형검사를 합시다.》라는 의사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한순희동무는 주저없이 팔을 걷어올리였다.

《제가 O형이 아닙니까. 빨리 수혈합시다.》

《또 동무가? 안되오.》

의사는 단호하게 머리를 저었다. 한순희동무가 뜻밖의 일로 사경에 처한 한 철도종업원의 아들을 위해 피를 바친것은 불과 열흘전이였던것이다. 영문을 알아차린 군관이 급히 다가왔다.

《제가 아들애와 피형이 같습니다. 아버지구실을 하게 해주시오.》

그러자 한순희동무가 그를 만류하였다.

《세덕이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 피와 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할 군인이 아닙니까. 세덕이의 생명을 지키는것은 우리 의료일군들의 본분입니다.》

붉은 피가 세덕이의 몸으로 방울방울 흘러들었다.

가정의 행복이며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한순희동무,

그의 소행에는 의료일군은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정성은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지침으로 삼고 간호사업의 하루하루를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온 처녀간호원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비껴있다.

한순희동무와 오래동안 함께 일한 내과 당세포비서 한일룡동무는 말하였다.

《환자의 치료과정은 병력서에 세세히 기록됩니다. 그러나 의료일군의 정성은 병력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런 지극한 정성의 이야기가 한순희동무의 지나온 생활속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가 내과 간호원으로 있던 몇해전이였다.

한순희동무는 자기가 간호를 맡은 한 전철원의 얼굴에 그늘이 비낀것을 보게 되였다. 얼마전에 안해를 잃은 그의 집에는 열살 난 딸애가 혼자 있었던것이다. 사연을 알게 된 날부터 한순희동무의 퇴근길은 환자의 집으로 이어졌다. 환자가정의 동자질을 도맡아하고 소학교에 다니는 처녀애의 숙제장까지 보아주느라 밤을 지새운 그가 다음날 아침에는 밝은 얼굴로 병원에 출근하여 간호사업에 정성을 다 바친 사실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 진심어린 정성으로 환자의 얼굴엔 웃음이 비꼈고 병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였다. 병치료는 약절반, 마음절반이라고 환자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것은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성의 중요한 한 측면이였던것이다.

개천철도합숙에서 생활하는 한순희동무는 쉬는 날이면 수십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집에 다녀오군 하였다. 집으로 갈 때에는 자그마한 수첩 하나를 들고갔다가 병원으로 돌아올 때에는 올망졸망한 꾸레미들을 가득 안고온 한순희동무, 래일이 우리 환자의 생일이라거나 며칠전에 입원한 환자의 손발이 몹시 찬데 솜장갑과 버선을 만들어야겠다면서 그가 내놓는 수첩을 제대군관인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보며 의견을 합치군 하였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환자에게 찾아올 가족도 친척도 없는 경우에는 담당간호원인 자기가 스스로 환자의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여 면회품을 마련하여 안겨준 그 갸륵한 마음,

치료받는 사람들을 단순히 환자로가 아니라 당과 조국을 받드는 혁명대오에 한시바삐 서야 할 전사로, 일군으로 대한 그였기에 그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넋을 기울여왔던것이다.

언제인가 하반신마비가 온 환자를 위해 며칠밤을 새워가며 수기치료법을 익혀가는 그를 보고 한 신입간호원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우리의 수고를 환자가 알기나 하겠는가고 이야기한적이 있다.

그때에도 한순희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환자가 알면 치료가 안된대요.》

환자들을 위하여 수십리 밤길을 걷고 남몰래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그리고 생명이 경각에 달한 환자를 위해 수혈침을 자기 팔에 꽂으면서도 한순희동무는 그것이 알려지기를 바란적이 없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간호원이다.)

이 하나의 생각으로 심장을 불태워온 한순희동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대중의 사랑속에 사는것이였고 가장 큰 긍지와 보람은 혁명동지들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치는 무한한 헌신이였다.

그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두 어린이가 생명을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개천철도국 일군들과 여러 군인가족들이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을 때 그는 말하였다. 전세대들이 발휘한 지극한 정성의 모범을 본받았을뿐이라고.

준엄한 날에나, 행복한 날에나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걸어온 미더운 보건일군들이 세월의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변함없이 엮어온 정성의 꽃다발을 어찌 다 헤아리랴. 이 화원속에 오늘은 새 세대 간호원 한순희동무의 진정이 어린 한송이 꽃이 피여나고 그뒤를 이어 수천수만의 꽃들이 저마다 필 자리를 찾으려니 시들줄도 마를줄도 모르는 참된 사랑과 지극한 정성의 세계는 정녕 어디에 뿌리를 둔것인가.

남이 없는 내 나라, 동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피와 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 따사로운 사랑의 대지, 바로 거기에 뿌리를 둔것이기에 우리 보건일군들의 정성의 꽃은 그렇듯 아름답고 순결하며 향기그윽한것이다.

본사기자 허 명 숙

혁명의 성지로 달리는 마음

강동군 삼등편의봉사사업소 로동자 장철만동무

선군령장의 탁월한 지략과 풍모에 매혹되여

백전백승의 위대한 선군정치로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백두산이 낳은 천출위인이시며 희세의 정치가이시고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영광과 긍지를 담아 남녘겨레들은 목청껏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위대한 군사정치가, 천출명장이신 김정일령도자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행운이다. 여기에 우리 겨레의 밝은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다.》

《김정일장군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견주지 못할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지략을 지니신 천하무적의 최고사령관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은 한번의 호령으로 대적을 전률케 하는 무비의 담력과 의지를 지니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걸출한 령군술을 지니신 명장이시다. 바로 이런분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셨기에 이북의 민중과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민중으로, 무적의 강군으로 된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것이다.》

남녘땅을 뒤흔들며 울려퍼지는 흠모의 메아리, 바로 여기에는 선군혁명령도의 진두에 서시여 비범한 예지와 슬기,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된 남조선인민들의 심정이 그대로 비껴있다.

지금 세계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제국주의의 횡포한 침략책동앞에서도 끄떡없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강성대국에로 줄기차게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령토도 작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우리 공화국이 그처럼 세계만방에 존엄과 위용을 떨치고있는것이 바로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선군령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있기때문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세계정치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탁월한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자주적운명개척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시는 절세의 위인,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다. 하기에 우리 공화국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확고한 담보인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는 남녘겨레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신문은 각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의 홈페지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과 그분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로 꽉 들어차있다. 김정일장군연구 서울시민위원회의 명의로 인터네트에 실리고있는 〈천출명장 김정일국방위원장〉이라는 제목의 련재기사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백두의 담력으로 세계를 뒤흔드는 령장중의 령장이며 청년시절에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다재다능한 사상리론가, 군사지략가가 되였다.〉라고 썼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이 련재기사로 실리는것은 하나의 새로운 경향이다.》

보는바와 같이 지금 남녘겨레들은 외래침략세력의 무분별한 도전과 침략책동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안녕이 믿음직하게 지켜지고 세계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높이 떨쳐지고있는것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있기때문이라는것을 현실을 통해 확신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위대한 선군정치에서 민족이 나아갈 길을 깨닫게 되였을뿐만 아니라 절세의 위인, 백두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무한한 기쁨과 긍지를 가슴에 새겨 안고있는것이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원은 《이북이 오늘 그처럼 세상사람들이 높이 보는 강국으로 될수 있은것은 무엇때문인가.》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라가 강하고 약한것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무장장비정도에 있는것이 아니다. 이북이 그토록 강대한것은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는 명장중의 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김정일장군님은 문무를 겸비하시고 멸적의 의지와 필승의 기상을 지니신 위대한 정치가이시고 강철의 령장이시다. 무적의 장군 김정일령수님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대행운이고 자랑이다.》

대전에 사는 한 퇴역장성이 한 이런 말도 있다.

《미국이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별의별짓을 다하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지만 이북민중과 인민군은 끄떡하지 않고 국위를 만방에 과시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백방으로 옹호하고있다. 이 놀라운 현실은 천출명장으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한몸에 체현하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을 높이 모시였기때문에 펼쳐질수 있었다.》

이러한 칭송의 목소리, 천하제일명장, 희세의 령장을 높이 모신 무한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친 이야기들은 시국토론회, 《민심의 국회》, 《민심의 광장》이 펼쳐지는 남조선곳곳에서 계속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명장의 비범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미국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으시며 선군의 위력을 과시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신념으로, 지략으로, 담력과 배짱으로 이기시는 명장중의 천하제일명장, 이 세상 수백수천의 위인들과 장군들이 세기를 걸쳐 이룩한 그 모든것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업적으로 겨레의 안녕,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그이를 우러러 남녘겨레가 다함없는 경모와 칭송의 목소리를 터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것이 아니랴.

정녕 세월이 흐를수록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린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민족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지고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억센 신념이다. 그 신념 담고담아 남녘겨레들은 이렇게 목청껏 심장의 목소리를 터친다.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참으로 대행운이다. 세계으뜸의 선군정치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백승을 떨치시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당할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 만세!》

본사기자 김향미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영웅

전승의 축포가 하늘높이 터져오른 력사의 그날로부터 5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남녘겨레들은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새 력사연구회 회원 정진철은 7월 27일은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력사의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은 제국주의대적과 청소한 이북과의 대결전이였다. 미제는 다국적무력을 끌고 건국을 선포한지 2년도 안되는 이북에 달려들었다. 그것은 세계전쟁사에 없는 싸움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참패를 당하고 우리 민족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였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치렬했던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누리에 과시한 7.27전승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독창적인 전법과 세련된 령군술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준엄한 조선전쟁시기를 회상하며 한 애국인사는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력사에는 이름난 위인과 뛰여난 명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력사를 더듬어보아도 김일성장군님처럼 희세의 영웅으로 칭송받을 그렇듯 불멸의 업적을 쌓은 위인과 명장을 찾을수 없다. 김일성장군님의 군사적천재성은 양키군대가 참패하고 미국의 코대가 꺾어진 지난 조선전쟁때 온 세상에 더욱 널리 알려졌다. 김일성장군님은 고금의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영웅이시다.》

현대명인사 연구사 전영진은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공화국의 승리는 《인류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한 신화적쾌승이였다.》고 하면서 《김일성장군님은 세계에 이름을 떨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다.》라고 칭송하였다.

부산에 사는 한 이전 군장성은 지난 조선전쟁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힌 글에서 《전쟁에서 이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의 결과였다. 전쟁은 단순한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사상과 사상, 지략과 지략의 대결이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교전쌍방의 경제력이나 군사적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는 군민의 정치사상적준비상태, 특히는 지략을 펼치고 군민을 령솔하는 령수의 령도력에 의해 좌우되는것이다. 6.25의 비극을 7.27전승이라는 패거로 바꾸어놓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력사적공적은 위대한 령장을 모신 군민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있으며 그 어떤 대적의 침략도 쳐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라고 자기의 진정을 터놓았다.

《피로 얼룩진 침략전쟁력사에서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고 자랑하던 미군은 인민군대가 남진하는 곳마다에서 얻어맞고 녹아났다.》, 《3년간의 전쟁에서 북이 이룩한 모든 승리의 근저에는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 한없이 숭고한 헌신적로고가 깃들어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김일성주석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군대와 민중의 무비의 영웅성의 승리이다. 김일성주석님은 가장 출중한 군사의 영재, 불세출의 영웅이시다.》…

남녘겨레가 사는 곳마다에서 조국해방전쟁을 우리 인민의 승리로 이끄시여 민족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어버이수령님을 칭송하는 이런 흠모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남녘겨레들은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있어 전승의 7.27은 영원하다고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본사기자 라설하

참혹한 핵전쟁의 재난속에 몰아넣으려는 용납 못할 도발책동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담화 발표

【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25일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이날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끝끝내 조선동해에서 북침선제타격을 노린 대규모련합해상훈련을 벌려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 훈련뿐아니라 8월 중순에 벌리려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년말까지 련이어 감행될 전쟁연습들은 종전의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이며 우리 민족에게 전대미문의 핵참화를 들씌우게 될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모의연습이라고 담화는 규탄하였다.

담화는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구실로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이 공모하여 벌리는 이번 핵전쟁연습은 결코 그 누구의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적성격의 무력시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상전과 주구가 한짝이 되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에로 옮기려는 이번 핵전쟁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파괴으로 설정한 침략적인 전쟁행위이다.

특히 정치적자주권은 물론 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리명박역적패당따위가 이번 핵전쟁연습의 돌격대로 돌아치며 동족대결의 앞장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것이 가소롭기 그지없다.

제 족속들은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남의 손을 빌어 세계를 제패하려는 상전의 음흉한 기도에 놀아나 민족의 귀한 자식들을 침략군의 총알받이로 내맡기려는 리명박역적의 죄행은 천추만대를 두고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는데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것이다.》라고 엄정한 립장을 밝혔다.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은 물과 불도 가려보지 못하며 헤덤비는 저들의 망동이 어떤 결과를 빚어내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들은 리명박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동해에서 벌리고있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조선민족을 참혹한 핵전쟁의 재난속에 몰아넣으려는 용납 못할 도발책동으로 락인하고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미국과 리명박패당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미국과 매국역적 리명박괴뢰패당의 동족대결, 북침전쟁소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반미, 반전평화수호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집안싸움으로 소란한 반역당

최근 남조선에서 터져나온 영포회사건이 집권층내부의 권력싸움으로 복잡하게 번져가고있다.

《한나라당》소속 《국회》의원인 정두언은 얼마전 론난이 되고있는 여권내의 권력싸움에 대해 눈물까지 흘리며 인정했다고 한다. 그는 영포회사건의 본질은 여권내 비조직의 부당한 《인사개입》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권력실세들과 맞서 외로운 싸움을 했다고 실토하였다. 그가 겨냥한 권력실세란 남조선집권자의 형인 《국회》의원 리상득을 의미한다.

《한나라당》내 친리계(리명박계)의 신진세력을 대표하는 정두언은 이미전부터 구세력으로부터 당권을 빼앗아내려고 모지름을 써왔다. 이번의 《한나라당》전당대회에서 정두언이 당대표직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대표후보로 나설만큼 그의 야심은 컸다. 하지만 그의 당권장악노력은 걸음걸음 리상득을 비롯한 친리계구세력의 방해에 부딪쳤다. 리상득이 자기 동생인 집권자를 등대고 영포회를 비롯한 사조직들을 통해 《인사개입》 등 온갖 권력형부정행위를 다 저지르고있으니 달리 될수 없는것이다.

정두언으로 말하면 집권자가 서울시장을 할 때 부시장직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한때 리명박의 심복으로까지 불리웠으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리상득에 의해 별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로부터 정두언패는 리상득을 중심으로 하는 여권내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당지도권을 탈취하기 위해 날뛰였고 리상득패는 또 그들대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신진세력의 진출을 억제하는 갖은 음모책동을 다하였다. 이것이 최근 드러난 《한나라당》내의 권력싸움이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정두언과 리상득의 권력싸움은 이미전부터 벌어지고있었다. 거기에는 박영준이라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깊숙이 관계되여있다. 그는 11년간이나 리상득의 보좌관노릇을 하였다. 이자는 리상득이 밀어준 덕으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국정조정》과 집권층의 《내부감찰》기능까지 한손에 거머쥐고 세도를 씀으로써 또 하나의 권력실세로 꼽히였다. 정두언의 권력쟁탈전의 주되는 대상은 자연히 리상득과 그의 대리인 박영준으로 되였다.

지난 2008년 미국소고기수입재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시위투쟁으로 심각한 통치위기가 조성되고 집권세력내부에서 그 책임론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정두언은 리상득과 박영준 등을 겨냥하여 위기가 《대통령》측근인사들에 의한 《권력사유화》와 부당한 《인사개입》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나섰다.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였던 박영준이 정두언의 비난에 강하게 반발해나섰다. 그로 인한 파문은 더욱 커지면서 박영준이 그해 6월 사퇴하게 되였다. 하지만 정두언패는 《권력사유화》문제가 박영준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권력을 람용하며 부당한 《인사개입》을 한 리상득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이에 대해 리상득은 《인사개입》의혹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에 대한 《2선후퇴》요구를 거부해나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리명박은 정두언에게 공개경고를 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정두언은 권력에서 일시 배제되였고 하는수없이 리상득과의 권력싸움을 중지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한나라당》의 내부갈등은 해소된것이 아니였다. 정두언패와 리상득패는 서로 앙심을 버리지 않고 속으로 칼을 갈며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것이 2009년 1월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자리에서 물러났던 박영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임명되면서 두 패당의 권력싸움에는 다시금 서서히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박영준은 《국무총리실》로 자리를 옮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박아넣은 자기 심복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권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리상득패의 여전한 권력람용행위가 권력쟁탈을 노리는 정두언패를 자극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남조선에서 리상득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는 영포회의 권력형부정사건이 터지였다. 이것이 정두언패가 세력다툼을 노리고 리상득패의 권력형부정행위를 물고늘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무총리실》문건을 루출시킨 결과라는 설도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영포회사건은 《한나라당》내의 추악한 권력싸움의 반영이다.

권력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시정배들의 집단인 《한나라당》은 권력을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어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그것이 이전에는 주로 친리계와 친박계(박근혜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친리계내부의 싸움이 더 치렬하다. 지난 7월 14일 대표선출을 위해 열린 《한나라당》전당대회에서도 친리계소속 후보들은 서로 삿대질하고 비방하면서 온갖 쌍욕들을 퍼부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한나라당》의 친리계세력까지 둘로 갈라져 권력싸움을 하는데 대해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야유하였다.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패거리들이 민심이야 어떻든 권력에만 환장하여 정치판을 어지럽히고있으니 남조선에서 무슨 일이 제대로 풀려나갈수 있겠는가.

지금 저들내부에서 치렬한 권력싸움이 벌어지는데 바빠맞은 보수패당은 정두언과 박영준에게 《경고메쎄지》를 보낸다 어쩐다 하면서 친리계인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친리계와 친박계의 《협력》놀음을 벌리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집안싸움으로 망해가는 보수패당의 불우한 처지만을 강조해줄뿐이다.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싸움에만 몰두하는 더러운 시정배들에게 남조선인민들은 침을 뱉고있다.

본사기자 송영석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야수적인 학살만행을 잊지 않고있으며 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인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공중비적들이 우리 수안땅에 떨군 수백kg짜리 폭탄을 보느라면 이가 갈리고 두주먹이 떨린다.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수천명의 무고한 인민들의 생명을 마구 앗아간 미제공중비적들의 만행을 천백배로 결산해야 한다.

자료발굴사업에 큰 힘을

수안군계급교양관 일군들과 강사들

—나어린 소녀의 발을 소달구지에 비끄러매고 사지를 찢어죽이였으며 그의 어머니마저 돌탕쳐죽인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야말로 사람가죽을 뒤집어쓴 악귀들이다.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한다.

수안군계급교양관을 참관하며 이렇게 격분을 터치는 사람들의 가슴가슴은 원쑤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투철한 계급의식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수안군계급교양관 일군들과 강사들의 노력은 실효를 거두고있다.

이곳 계급교양관 관장인 리명화동무는 종업원들과 함께 계급교양의 거점답게 군계급교양관운영사업을 개선할 방도를 모색하고 적극 실천해나갔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여러가지 자료들이 전시된 계급교양관으로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강사들이 진행하는 실감있는 해설강의는 참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어느날 군안의 한 지역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공중비적들이 떨군 불발된 폭탄을 발굴하게 되였다. 후날 폭탄껍데기는 군계급교양관에 전시되였다. 계급교양관을 찾은 사람들은 원쑤 미제에 대한 증오심으로 하여 그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공중비적들이 떨군 폭탄에 두팔을 잃은 읍에서 살고있는 한 할머니는 참관자들앞에서 자기가 체험한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만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격분에 넘쳐 살인악귀들을 단죄하였다.

이곳 계급교양관 일군들과 강사들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자료들을 새로 더 많이 발굴전시하여 계급교양사업에서 더 큰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들은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살인만행을 목격하였거나 원쑤놈들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한 체험자들을 찾아내기도 하였고 강의에 리용할 계급교양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리길을 걷기도 하였다. 그러한 나날에 미제의 폭격만행을 직접 겪은 한 할머니로부터 놈들의 악랄성을 보여주는 생동한 사실자료들도 넘겨받게 되였고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군의 한 리에서 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자료도 발굴하게 되였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집게로 애국자들의 이발을 뽑고 몽둥이로 다리뼈를 짓이기고 총탄을 퍼부어 학살한 다음 아직 채 숨이 지지 않은 사람들은 생매장해죽인 치떨리는 살인만행을 고발하는 자료들은 사람들의 가슴을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일군들과 강사들은 새 자료들을 계급교양관에 전시하고 해설강의를 진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이동해설강의도 활발히 벌리였다. 대중의 심금을 더욱 울릴수 있게 예술선동을 배합한 계급교양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만행을 폭로하는 강사들의 해설을 들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멸적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오늘도 이곳 계급교양관 일군들과 강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계급의식을 더욱 높여주기 위해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호혁

적개심을 높여주어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탄부들속에서 계급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해설선전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탄부들이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하고있다.

탄광에서는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그들이 탄부들에게 우리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죄악에 찬 력사와 오늘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적들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에 대하여 사실자료를 가지고 알려줌으로써 탄부들이 적개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도록 하고있다.

탄광에서는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새 세대 탄부들이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끝없이 증오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고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치도록 하고있다.

탄광초급당위원회에서는 탄광마을에서 살고있는 한 로인이 나라를 잃었던 수난의 그 세월 인간이하의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데 대하여 새 세대 탄부들에게 이야기해주도록 하고 그러한 체험담을 통하여 탄부들이 우리의 생명이고 삶의 요람인 사회주의제도를 석탄증산으로 높이 받들어갈 결심을 굳게 다지게 하였다.

지금 이곳 탄광의 탄부들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원쑤들의 도발적인 전쟁연습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만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집을 터친다면 선군으로 다져진 무적필승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기어이 복수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야수적인 학살만행을 통하여 우리 인민을 굴복시켜보려고 하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목격한 원쑤들의 살인만행을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다.

그때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사람잡이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당시 리의 일군이였던 나의 아버지를 체포한 원쑤놈들은 쇠줄로 아버지의 량팔을 묶어놓고는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아버지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였고 허리뼈, 다리뼈가 다 부서졌다. 놈들은 그렇게 하고도 성차지 않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버지와 함께 많은 당원들과 애국자들을 방공호에 가둔 다음 총탄을 퍼붓고 수류탄을 던져 학살하였다. 놈들은 당원들과 애국자들의 가족도 모두 체포하여 자연수직굴이 있는 산등성이로 끌고갔다. 나도 어머니와 형, 동생과 함께 그곳으로 끌려갔다.

나의 형을 비롯한 여러명의 소년들을 먼저 앞으로 끌어낸 놈들은 《이놈새끼들이 이제 크면 우리를 복수한다. 그러니 다시는 살아남지 못하게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지껄이면서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커다란 돌로 그들의 머리를 내리쳐죽이였다.

피를 본 놈들은 미친개마냥 날뛰며 총탄을 퍼붓고 총창으로 찔러 늙은이건 부녀자이건 아이들이건 가림없이 막 죽이였다.

산등성이는 순식간에 피로 물들여졌고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놈들은 피투성이되여 쓰러진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연수직굴에 처넣고는 굴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치웠다.

나는 바로 그 굴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다.

지금도 그때의 참혹한 광경을 그려보면 주먹이 떨리고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슴이 막 끓어번진다.

오늘 나뿐이 아니라 우리 인민모두가 복수자로 살고있다.

세월은 흘러도 우리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감행한 귀축같은 살인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로 피값을 받아낼것이다.

성천군 대봉리 리병근

총칼로 우리 나라를 강점했던 강도 일제를 천백배로 복수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전승업적

외국선박선원들 경축집회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청진항, 남포항에서 26일과 27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남포항에서 진행된 집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남포시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집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집회들에는 캄보쟈국적선박 《얀성》호, 빠나마국적선박들인 《트레이드 포춘》호, 《링하이》호와 쎈트빈쎈트 그레너딘즈국적선박 《베누즈》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하였다.

집회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100여년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미제가 지난 세기 50년대에 청소한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야만적인 살륙만행을 감행한데 대하여 준렬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을 수호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탁월한 령군술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정의의 전쟁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조선인민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빛나게 건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설자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남포항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하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여러 나라 신문이 기념글 게재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캄보쟈신문 《인민》 14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모시고 《조선, 승리의 7.27》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공화국이 미제를 타승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나 없었다, 하지만 조선전쟁은 미국의 침략사에 처음으로 패한 전쟁으로 기록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군술에 의하여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7월 27일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위대한 승리의 날로 길이 빛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제26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하였다.

60년전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20세기의 가장 류혈적이며 파괴적인 전쟁이였다.

미제는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넘겨씌우고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였으며 전쟁기간 야만적인 살륙과 파괴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위대한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다.

미제는 침략전쟁사상 처음으로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참패를 당하였다.

미제는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조선반도에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13일부는 《김일성주석의 전승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올해 조선인민은 전승 57돐을 맞이한다,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타승한것은 세계전쟁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찬양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군사사상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우월성과 령활무쌍한 전략전술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데 대하여 렬거하고 김일성주석의 전승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디아신문 《라버 메일》은 《조선, 승리의 7.27》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리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나 없었다.

110여차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전도 몰랐다는 미국은 조선전쟁에 자기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과 15개 추종국가군대, 남조선괴뢰군 그리고 구일본군잔당들까지 동원하였으며 막대한 군사장비를 들이밀었다.

하지만 조선전쟁은 미국이 력사상 처음으로 패한 전쟁으로 력사에 기록되였다.

조선에서는 전승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패전을 탄식하는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7월 27일은 조선인민이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위대한 승리의 날로 력사에 기록되였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냄으로써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던 미국의 기도를 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도 수호하였다.

에짚트신문 《알 라이》는 《조선의 승리의 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는 세계사적기적을 창조한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본사기자

기만적인 《핵축감》놀음

미국이 핵탄두《축감》으로 인해 생기는 무력공백을 메꾸기 위해 새로운 무기생산 및 현대화의 길로 나가고있다. 미국방성이 밝힌데 의하더라도 미국이 보유하고있는 핵탄두수는 무려 5 000여개에 달한다. 미국이 이처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있는것자체가 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핵재난의 화근으로 된다. 그런데 미국은 핵탄두를 《축감》한다고 발표하고는 뒤에 돌아앉아서 딴 장난을 하고있다. 즉 핵탄두《축감》에 따라 생기는 무력공백을 메꾼다고 하면서 현대적인 상용무기개발과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미국은 여기에 1 750억US$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것은 미국이 표방하는 핵탄두《축감》이라는것이 핵무기철폐를 요구하는 세계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일반적으로 무기축감은 현존하는 각종 전쟁장비들을 포함한 군사적공격수단들을 대폭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핵무기축감은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을 들씌울수 있는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핵탄두를 축감한다고 하여 그것을 대신할수 있는 다른 새형의 무기를 만들어내는것은 축감이라고 말할수 없다. 핵무기는 물론 상용무기 역시 다같이 인류에게 재난을 들씌우는 파괴적인 무기들이다. 미국이 핵탄두를 《축감》하는 대신 새로운 무기생산 및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것은 핵군축이 아니라 그 보충갱신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실례로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새로 개발, 생산하려고 하는 무기들은 핵무기의 위력에 못지 않은것들이다. 그것들은 핵무기로 하지 못하는 전투작전들을 용이하게 하는것들이다. 미국이 새로 개발하는 《날아다니는 잠수함》과 지구의 그 어느곳이나를 막론하고 1시간내에 공격할수 있는 초음속무인기개발 및 생산, 무게가 2g정도 되는 극소형비행물체개발시도가 바로 그러하다. 이미 실전배비에 들어간 미국의 초대형지하구조물파괴용폭탄 《벙커 버스터》의 폭발력은 종전의 폭탄보다 10배이상에 달한다. 결국 미국은 수명이 다된 낡은 핵무기를 없애는 대신 보다 공격력과 파괴력이 큰 현대적인 무기들을 생산, 보유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무력증강, 공격능력의 대폭적인 강화이다.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은 저들의 중점전략, 지역전략에 맞게 현대적인 무기 및 장비들을 따라세우기 위한것이다. 랭전종식후 미국은 세계지배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맞게 미군부대들의 재편성배비와 함께 무기들을 경량화, 고성능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저들이 군축분야에서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것처럼 소란을 피우고있다.

미국의 무력증강과 현대화책동으로 하여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조장되고 새로운 전쟁위험이 조성되고있다. 미국은 힘의 우위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며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의 처사에 경계심을 표시하고있다.

미국은 군축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범죄적흉계만을 꾸미고있다. 미국의 《군축》타령에는 가시가 돋쳐있으며 거기에 속아넘어가면 나라의 자주권이 위태롭게 될수 있다. 미국의 침략야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부풀어오르고있다. 현실은 세계 진보적나라들이 미국의 기만적인 《군축》놀음에 더욱 각성하며 그에 따른 군사적대응준비를 철저히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특히 미국의 기본공격대상으로 되고있는 나라들인 경우 더욱 그렇다.

우리 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의 침략위협을 많이 받고있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군사적발판으로 삼아 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따라서 조선반도는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정세가 긴장하고 전쟁위험이 큰 지역으로 되고있다. 최근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타격무력이 까마귀떼처럼 밀려들어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정세를 전쟁상황에로 몰아갔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험악한 정세는 지난 기간 우리가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은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잘한것인가를 더욱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을 내다보고 취한 선견지명의 자위적조치이다.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이 강화될수록 우리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은 백방으로 다져질것이며 그것은 조국보위와 평화수호의 위력한 방패로 될것이다.

백 문 규

조선은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천안》호사건을 걸고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해오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끝끝내 우리를 반대하는 무모한 실전행동에 진입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을 24일과 25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련합훈련에 핵억제력으로 당당히 맞서나갈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거나 침공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9.19공동성명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직접적인 군사적도발책동에 매달리고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응한 전면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것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응당한 선택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TV방송, 중국의 《인민일보》, 《베이징일보》, 《해방일보》, 이란의 프레스TV방송과 신문들인 《이란 뉴스》, 《테헤란 타임스》, 《카이한 인터내슈널》, 까타르의 알 자제라위성TV방송, 마께도니아 미아통신, 프랑스신문들인 《피가로》, 《빠리지앵》, 이딸리아의 통신, 방송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보도하였다.

⁘ ⁘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더더욱 위험천만한 단계에서 감행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24일과 25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은 대화와 전쟁에 다 준비되여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대변인은 얼마전에 진행된 미국—남조선《외교국방장관회담》이라는데서 미국이 조선을 반대하는 대규모전쟁연습과 추가적인 제재를 강행한다는것을 공식발표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이 아직도 랭전식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대결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이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고있으며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의 도발책동은 조선이 정한 금지선을 넘어서는것이며 이런 조건에서 조선도 미국이 그어놓은 금지선에 더이상 구애될 필요가 없게 되였다고 하면서 대변인은 조선은 이미 천명한대로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조치를 취하는것으로써 대응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인민일보》, 《해방군보》, 《베이징일보》, 《해방일보》,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미국의 AP통신, CNN방송, 일본의 《아사히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이딸리아의 통신, 방송들도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보도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이 《천안》호사건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이 발표된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중국의 《인민일보》, 《해방일보》, 《베이징일보》, 인도네시아의 안따라통신, 수리아의 사나통신과 중앙TV방송, 리비아신문 《알 자흐프 알 아흐다르》, 미국의 AP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가 10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

조선의 통일을 지지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 아흐메드 함루쉬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는 조선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1950년에 발발한 조선전쟁은 1953년에 정전협정조인으로 끝났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지 못하고 의연 랭전의 유물로 남아있다.

조선은 전체 인민의 념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분렬되여있으며 남조선에는 수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있다.

이것은 지역의 평화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으로 되고있다.

그는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남조선의 리명박역도의 집권으로 악화되였으며 특히 최근 《천안》호침몰사건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이른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는 조선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반도문제에 책임있는 유관국들은 지역의 평화에 리롭게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통일된 조국땅에서 평화롭게 살려는 조선인민의 념원을 지지한다.

본사기자

협 조

도미니까와 꾸바가 22일 두 나라 외교 및 공무려권소유자들에 대해 사증을 면제해줄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중국과 싱가포르는 범죄와 테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호상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중국과 라오스가 22일 군사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리베리아와 나이제리아는 원유공업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 간 다 의 도 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중 국 신 문 의 글

중국의 《환구시보》 22일부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충동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무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는 기필코 제국의 쇠퇴를 초래하게 된다는것이 력사에 의해 거듭 증명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에 매여달리는것은 제국들의 본성으로 되였다고 비평하였다.

최근 미국이 서태평양수역에서 력사상 류례없는 대규모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랭전시기 제국의 옛 그림자를 엿볼수 있게 하는듯 하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서태평양은 오래전에 벌써 지난날과 달라졌지만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충동은 의연 매우 강렬하다고 하면서 신문은 미국이 시종 이 지역에 강력한 무력을 배비해놓고 해마다 각종 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신문은 마치 보물을 찾듯이 적수를 찾는데 열중하는것은 미국정객들의 전통으로 되고있다고 비난하고 지금 미행정부가 저들의 전략적주의력의 초점을 서태평양에 맞추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그들의 《적수결핍증》이 또 발작하였다고 까밝혔다.

미국은 지역의 동맹자들에게 영원히 《만형》으로 되려는 결심을 과시하고 저들이 단정한 《말썽국가》에 위협을 주고 억제하기 위해서도 격투장을 될수록 요란하게 만들려 할것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미국이 자기의 근시안적인 목표를 위해 이 지역의 안정을 희생시킨다면 종당에는 자기자신을 함정속에 밀어넣게 될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베이징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무장장비증강책동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자위대》에 무장장비들을 증강배비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24일 일본방위성은 년말에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할 때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을 현재의 18척으로부터 20척으로 늘인다고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일미의 그 무슨 《억제력》과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서방을 비난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21일 한 서한에서 미국과 서방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이란의 자헤단시에서 테로분자들의 폭탄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이 이슬람교도들사이의 대립을 격화시킬 목적밑에 미국과 서방이 테로분자들을 사촉한 결과라고 폭로하였다.

그는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단결하여 적들과 맞서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규탄배격받는 이스라엘

▲유엔주재 꾸바상임대표가 22일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온갖 불법무도한 행위를 일삼고있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를 잔인하고 비법적인 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무조건 즉시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팔레스티나와 아랍나라 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점은 중동지역의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는데서 여전히 주되는 장애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꾸바정부는 그러한 강점을 종식시킬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티나인민의 빼앗을수 없는 권리행사에 관한 유엔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유엔안보리사회에서 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당국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동부꾸드스를 비롯한 팔레스티나령토에서 《정착촌》확장책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으며 국제공동체가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뛰르끼예에서 반이스라엘시위

죄악의 력사는 반드시 계산될것이다

지난날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수난의 력사에 대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잊지 않고있으며 분노로 가슴을 치고있다.

칼에 의한 상처는 인차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가셔지지 않는 법이다. 지난 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비법적인 강점과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통치에 의해 우리 민족이 강요당한 불행과 고통, 피해는 아직도 삼천리강토에 그대로 슴배여있으며 민족성원모두의 가슴속에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우리 인민모두가 겪고있는 오늘의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은 과거 일제가 미제와 공모하여 조작한 《가쯔라—타프트협정》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가쯔라—타프트협정》은 미제가 일제의 조선강점을 법적으로 담보해준 날강도적인 문서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할 야망을 품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청일전쟁후 저들이 차지하였던 료동반도를 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된 일제는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로일전쟁을 도발하였다. 로일전쟁은 일제와 함께 미제가 우리 인민의 흉악한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야망에는 끝이 없으며 국력이 약하면 제국주의전쟁의 희생물로, 롱락물로 된다는것이 로일전쟁의 교훈이였다.

일본과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력사를 가지고있으며 그 전과정에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는 관계에 있었다. 흉악한 미제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식민지지배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한 강도적인 《가쯔라—타프트협정》조작의 길에 나섰다. 1905년 7월 일본에 기여든 미륙군장관 타프트는 당시 일본수상이였던 가쯔라와 비밀회담을 진행하고 7월 29일 이른바 《가쯔라—타프트협정》을 체결하였다.

비밀각서교환의 형식으로 체결된 《협정》에서는 로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가 필리핀에 대한 침략의 전주곡으로 될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이 필리핀에 대하여 어떠한 침략의도도 품고있지 않음을 확언하였다. 또한 미국은 조선이 일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나라와 어떠한 협정도 체결할수 없게 할 정도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하였다.

《가쯔라—타프트협정》의 내용을 통해 미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지배권확립 즉 일제의 조선강점을 인정하였으며 대신 일제가 필리핀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지배를 시인하고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겠다는것을 약속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가쯔라—타프트협정》은 1905년 7월 31일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 《협정》은 20세기초 아시아침략에 나선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팽창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것으로 되였다.

일제는 《가쯔라—타프트협정》체결로 조선강점에 대한 미제의 지지를 담보받음으로써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수 있는 유리한 국제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이 《협정》은 미국으로 하여금 《영일동맹》의 성원국으로 되게 하여 영국과 같이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제국주의적침략야망을 승인한것으로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에서의 미제의 식민지지배의 안전을 담보해주었다.

남의 나라의 신성한 령토와 민족의 운명을 제멋대로 탁우에 올려놓고 유린롱락한 《가쯔라—타프트협정》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 강도배들이라는것을 보여주는 증거문건으로 력사에 남게 되였다.

미국과 《가쯔라—타프트협정》을 체결한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비법적인 침략과 강점책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시초를 열어놓은 《을사5조약》이 일제가 강도적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강탈한 불법무도한 조약아닌 《조약》이며 국제법상의 초보적인 요구와 원칙마저 무시한 사기협잡문서였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폭로되였다. 이 비법불법의 《을사5조약》에 의해 우리 겨레는 근 반세기동안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하에서 류례없는 참혹한 민족적수난과 불행을 겪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기간 수많은 무고한 우리 겨레를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수백만명의 청장년들을 징용, 징병으로 강제련행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드는 등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

일본반동들은 일제패망 65년, 《을사5조약》날조 105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끼친 과거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 배상하지 않고있다. 그들은 오히려 과거의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며 또다시 재침의 길에 나서려고 발광하고있다. 아시아의 《맹주》가 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망은 100여년전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미제 역시 1866년 침략선 《셔먼》호의 대동강침입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기도를 버리지 않고 신성하고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무력침공의 방법으로 정복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시대적요구와 국제관계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연히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저들의 대조선지배야망이 어제나 오늘에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이였다.

미일반동들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강행하고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국제공조체제의 확립》에 대해 떠들면서 쌍피리를 불어대고있다. 미일반동들은 대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일반동들이 세기를 이어가며 작당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지배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데 대해 치솟는 민족적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미일반동들이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감히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든다면 백여년동안 쌓이고 맺힌 한을 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보복타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어느때든 미일의 죄악의 력사를 반드시 계산할것이다.

조 택 범

ㄱ-01134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